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合八面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農產物販賣統制計劃

一

米國의인플레슌은 着着進行中으로 物價는올라가고 爲替는엿어지는同時 大産業法典에 모든産業의統制를 計劃하고잇다 더구나農民救濟를目標로는 棉麥價昂騰을爲하야補償減段을 實施하려하며 勞働時間의短縮과 最低勞賃의引上으로는 勞働者의購買力을增進시기려한다고한다 이와가튼米國의産業復興이 꼭成功을期必하라는 모르되 그膨大한規模가 一大壯觀을이루어잇다 目下인플레슌政策의가장 代表로指摘되는 나라는 米國과 日本이나 日本의그것은 米國에比하야 小規模的이다 恐慌의根本的原因은 大衆의終極的貧窮과 消費力減退에 숨어잇는것이다 米國의勞賃引上 農産物價格引上等도 大衆의減退된消費力을根本的으로 回復시기지못할것은 勿論事實이지만 遊資로積滯되는 日本의 인플레슌보담 훨신巧妙코大膽한設計다

二

今番農林省에서는 農村救濟를爲하야 農業保險을實施하려하야 來議會에는 그法案을提出하기로되야잇다 그와同時에 農産物價格의維持乃至吊上을 도모키爲하야 農産物販賣統制의計劃을세우고자 方今具體案을考究中으로 近日中閣議에提出되리라고한다 이두가지가 모다日本에잇서·새로운試驗임에는 틀림이업는것이로되 傳하는바에依하면 農産物販賣統制計劃에는米麥을除外되야잇슬뿐이아니라 資本金이겨우二百萬圓程度에지나지못한다 日本의主要農産物인米麥을除外한마큼그販賣統制의效果도 그만큼減少되는것은말할것이업거니와 그나마또二百萬圓의 적은預算으로서 果然그販賣統制가 可能켓느냐도 問題다 그러나오늘의日本으로서 모든點으로보아米國의尨大한그規模를 곳본떠올수는업는일이다 日本의인플레슌主義者들은 오즉米國의農法을바라보고 欽羨을禁치못할뿐이다

三

非常時日本의農業政策은 이와가티範圍가좁고 內容이貧弱하다 아프로是非될米價는 노코 겨리對해서 何等具體策을세우지못하는것으로미루어도 그것은 明確히알수잇는일이다 그러나 日本內에서 實施되는 農業保險도 朝鮮에는 實施의가망이업다고 斷한다 日本內에서計劃되는 農産物의販賣統制가 朝鮮에까지미치라는지 지금에잇서서한問題이다 朝鮮에잇서서는 繩叺 鰮油粕 沿魚 燒酒 海苔等으로 販賣統制가 이미行해잇는것도 잇스며 또장차行해지려는것도잇스나 그것은何等價格의維持乃至吊上을爲한것이 아니다 設使그販賣統制의結果가 多少價格의維持乃至吊上을 招致하더라도 그것은決코生産者의利益이아니요 오즉市場을獨占한財閥의利益이다 生産者의立場을떠나서 販賣統制는 우리로서어떠케자排擊치아니치못하나 一概販賣統制그것을 우리가反對하는것은 아니다 農民을爲해 農産物價格의吊上乃至維持를爲해 農産物의販賣統制를 行할수잇다면 特히反對할理由는업는것이다

四

朝鮮에農業保險을實施키어려운 理由로 當局者는 첫재農民의負擔過重과 둘재天災地變에 만히支配되는 朝鮮農業에對한保險業의危險을든다 現在와가치疲弊한朝鮮農民으로서 果然그얼마나 保險을利用하랴 는·負擔過重이라할것이 아모리도 農民의負擔過重으로써만은 農業保險의實施를回避할理由가못되니 그眞正한理由로말하면 오히려保險業의危險에잇지안할수업다 그러나 農業의發達이幼稚하야 天災地變에 만히支配되는만큼 危險率이만코 따라서農民의生活이安定性을일는것이라 一定한補償制度아래서라도 農業保險을實施코奬勵하는것이 적어도朝鮮農民을爲한一策이되리라고 생각한다

英國에對抗하야 佛經濟블럭成立
各殖民地間에連絡하야 相互依存方法을考究

【巴里通信】全世界가經濟블럭經濟로 固化되려는形勢가切迫하야오는이때에 英國이그殖民地自治領等을決束하야 一大블럭을形成함에對하야 佛蘭西역시海外領土를耕合하야 對抗的殖民帝國의形成을꾀하고잇다 最近에組織된佛蘭西植民地會議는 英帝國會議를模倣하야 佛蘭西母國과其海外領土間의 經濟的協定을 一層促進하며 또現下의經濟恐慌에對한 共同對策을講究할目的으로 成立되엇다 該會議의會員은各殖民地의商業家代表外에 各大臣及殖民地長官等으로 構成되엇고 主席은달라디에首相이 任에當하엿다 殖民會에서는 이미 殖民地産品을 本國市場에서 優待하는諸般方法과및 本國及 各地産品으로서는 各殖民地相互間에서外來品의 競爭을 壓倒할수잇게할諸方略을 決議하엿다 佛蘭西의 殖民地는 그生産品이 全혀 原料에限한點이라든지 또는 그原料生産도 單一農作品이라는點이 朝鮮과 彷佛하다 어떤地方은 全혀稻作만을 또다른地方에서는 全혀 고무 又는 落花生만을 生産하는바 單一農作의 弊害는 過去에잇서서도 學者間에 그危險의指摘이 잇섯스나 그悲劇的結果는 大恐慌襲來에依하야 現實化한것이다

不利한條件下 呻吟하는殖民地品

今日外지의 佛蘭西의關稅政策은 純全히母國의 利害關係에依하야 決定되여왓다 佛蘭西의 産物에對하야는極度로保護的關稅政策을 써왓고 오직國內에서 大規模로 生産할수업는 原料品에對하야서는 低關稅政策을 써왓다 各殖民地의産品에對하야는 何等의 優待條件이 업기때문에 殖民地産品은 外國의 産品으로 더부러母國의 市場에서 競爭을 하지아니하면 안되게되여잇섯다 그런데다가 佛殖民地産品은擧皆가 交通의 不備로 因하야 輸出港까지의 運費가過多함으로 交通整備된 他國의産品에對하야 遜色이 多大하야 母國의市場에서 外國品에게敗北하야온것이다

三大救護策도 產業助長에는無效

佛蘭西政府는 殖民地産品의 特別保護의 必要를깨닷게되여 세가지의 方針에依하야이目的을達키로政策을세웟다 即(一)殖民地産業의 加一層의合理化 (二)殖民地行政豫算의縮少 (三)公債政策에依한 公共事業의振興等이다 各殖民地産業에對하야現在母國이他國에서輸入하고잇는 諸産業品의生産을 獎勵하게되엇고 同時에 殖民地産品이 總體로母國의精製品과互相交換되도록 産業指導方針을세워왓다 이러한方針은 殖民地産業家에게 매우有利한 結果를낫케되엇다 他業의原料品을 生産하는 地位에잇는 殖民地産業家는 經濟恐慌으로因하야全國的市場의 物價가 大暴落하매 그들의 打擊은莫甚하엿다 그들의 過剩生産品은 好景氣時代에 借金政策에依한것이多部分인데 何等準備金이업는그들은 恐慌의巨波에 一敗塗地하게되엇다 더구나 擔保品의價値低落이며 短期借金의期限迫頭로 大難關에 逢着한것이다 또어떤地方에서는 通貨의變動으로 加一層의厄禍를만낫다가령 印度支那의銀本位廢止가든것이 그例다 이러하야佛蘭西政府는 各種在來의 救濟對策即農業救濟의政策 補助政策 地方銀行을 通한資金의融通 政府擔保의資金融通 補償制度 輸出補助等의 諸政策을採用하고잇스나아직까지顯著한效果가업는것이事實이다

弗低落對策으로 產業防護案決議
英保守黨員下院에提出

【聯合倫敦十九日發】十九日英國下院에對하야保守黨議員團으로부터 弗貨低落이英國産業에及하는影響을考慮하야 政府는爲替市場變動으로從來의保護的效果가 減失함을防止하는새로운産業防護手段을講究하라는決議案을提出하엿다

印度西北岸에 低關稅二王國

【聯合大阪二十日發】對印貿易이將來가極度로憂慮되고잇는이때印度西北岸『쉴베이』『가라치』에잇는半島를擁한 갓치及『카치왈』의兩王은印度聯邦內에多한王領과는對外經濟的으로其政策을달리하야日本品을歡迎하고低率關稅法을實施하야綿布는二割로聯邦本國의七割五分에對하야五割五分의低率이요더욱大日本菓子商에어더지게되여本品의輸出量은急激히增大되여貿易困難의非常時에 斷然注目을끌게되엿다特히大阪商船에서는 일즉부터注目하야昨年九月부터 同社『쉴베이』航路를利用하여가지고直接兩王國에寄港케하엿는데이미今日까지一萬三千噸에達한綿布絹系織物세멘트其他雜貨를陸揚하야活況을뵈고잇다

張學良各地서 兵器工場見學

【電通倫敦二十日發】張學良은 十七日羅馬를出發하야二十日倫敦에到着하엿다 學良은旅行中各地에서 兵器工場을見學하고잇는데 此는宋子文과協議하여가지고 抗日武器를購入할目的이라고觀測된다

休會後米代表 大概는歸國

【電通華盛頓十九日發】米國國務省은十九日國際經濟會議米

中國의南海島嶼 佛國領有는事實
軍事目的은업다고辯明

【聯合東京二十日發】先般佛國政府가 南中國海의九個島嶼를新領土라고 宣言하엿다는報道가잇슨以來 內田外相은 長岡駐佛大使에게 事情調査를命한바 其結果에依하면 佛國이 此等島嶼에 國旗를揭揚한것은事實로佛國外務省에서는 左와如한見解를갓고잇다 此等島嶼의領有가 軍事上目的이라고 佛國은正當를得하엿다고할수업다 그것은 이島嶼는軍事的根據地로 使用할수업고 佛國으로서는各國의船舶 佛領印度支那의漁船이 이附近에서 자조遭難하는데鑑하야 一九三〇年以來 佛國極東艦隊를시켜 航路安全標識을建設하여 오는中 大體로完了되엿슴으로 各國政府에對하야 右標識을通告하려고하는데 이와갓튼記事가 出現하게된것이다

國府最高會議 二十日부터開催

【電通南京二十日發】對內對外重要政策決定을爲하야蔣介石이召集한中央及國民政府의最高會議는二十日로부터開會四日間의豫定으로開催될터인바會議의 順次는
一、察哈爾問題의徹底解決
二、新疆西藏四川省等西北의國防問題
三、軍政의改革과國防軍編成五個年計劃
等이라고하고잇다

七月中旬 貿易增加內容

【電通東京廿日發】大藏省發表=七月中旬貿易은前年同期에比하야輸出은二千四百八十五萬六千圓 輸入은二千八百十七萬圓을各其增加하엿는데 其內容은輸出에잇서生絲 綿織物等의數量으로增加를보엿스나生絲의數量은도

石友三突然 新京을訪問

【電通奉天二十日發】山東의梟雄石友三은 十九日午後八時二十五分奉天驛着 寧山線에서竹田礦忠氏外七名과갓치 來奉하야 大和호텔에投宿하엿는데 來滿한目的은 ○○周圍로新京에 赴하야 重要한協議를遂할目的이다

印度產業不振으로 對日高關稅要望
外務省은趨勢를注視 保護法實施請願者漸增

【電通東京廿日發】在孟買總領事로부터 二十日外務省에到達한公電에依하면 印度의諸産業은紡績業을筆頭로全然不振狀態로恐慌하야 制定된產業保護法의出動을請願하는者 漸次多數로增加한다고傳한다 日本의對印主要輸出品에對하야 高一率關稅를賦課할念慮가잇슴으로外務省은그趨移를注視하고잇다

拓務省異動 朝鮮臺灣에는不及

【聯合東京二十日發】拓務省及外地局長級의人事異動에對하야서는 拓務本省의少壯派事務官中에서人事刷新의猛烈한氣運이 이러나永井拓相을爲始하야 當局도圓滿解決을策하야過般朝鮮[illegible]視察을理由로 高山秘書課長을派하야總督府의意向을探知시킴에이르럿다고도 傳하는바朝鮮에는宇垣總督 臺灣에는 南前總督(現遞相)其他政友會系의反對가잇서 拓相으로도昨年의岸本樺太廳長官免官問題도잇서愼重態度를가지고 잇는바 結局人事異動으로서八月下旬頃 西山關東廳財務局長의 勇退後(電信通信社(收監査役)入社)를 期하야 永井大連民政署長又는 郡司本省文書課長을後任으로하야相當히非難이잇는 昔日目下內務省局長을滿洲國政府에다보낸後任에는生駒本省管理局長을 管理局長後任에는高山本省秘書課長을 昇格시키려는說이가장有力하며 拓務局長의 處分으로 伍堂滿鐵理事의昭和製鋼所長就任을機會로 그後任에推擧코자하는바 滿鐵側反對가熾烈하야 結局少壯派가 要望하는自發的勇退의空氣도잇다 이리하야 拓務省及外地의人事刷新은本省及 關東廳에못치고 朝鮮臺灣에는 미치지안으리라고觀測된다

農產物價安定 調査機關設置
二百萬圓豫算

【電通東京二十日發】農林省에서는 農産物價의安定을期하고 農村更生을 促進키爲하야 從來農會或은 販賣組合에實行하여온 販賣統制를强化하야 農産物의 販賣斡旋을指導强化하기로되여 二百萬圓의 豫算으로 中央에 調査指導機關을 設置하려고하는데 이것이設置되면全國八萬의 出荷組合九千의 販賣組合은 此機關의指導로全農産物의販賣斡旋을 行하게될 것이다

對馮妥協破裂로 北中에戰局急迫
蔣의軍令싸라 討伐開始

【北平二十日發電通】北平軍事分會는 戰爭勃發을豫期하고 野戰病院隊를組織하야 二十日朝北平發八達嶺方面에出動케하얏다 事態가如斯히急迫하얏슴으로 北平에잇는馮玉祥의代表도十九日夜일즉이行方을감추고 各派의和平斡旋者도協調拒絕의態度를發하얏슴으로 中央側의 對馮武力討伐은이제와서全然表面化하얏다

【聯合北平二十日發】馮玉祥과의 和平解決에努力中이든宋哲元、熊斌等은 妥協을斷念하고 十九日夜天津으로 歸還하얏다 馮派代表도 亦是斷念하고 張家口로撤歸하엿다 此結果로中央의 馮玉祥討伐開始는 바야으로 蔣介石의命令을苦待하고잇슬뿐이다

張家口包圍 平綏線에危機

【聯合北平二十日電】黃郛와 馮玉祥과의 妥協交涉決裂로平綏線에中央軍과及中央軍과의前衛가서로對峙하게되여 中央軍諸將은各其師旅를整齊하여가지고 張家口를南北三方面으로包圍하려고하는形勢를取하엿다

滿洲國江防艦隊 蘇聯正式承認

【電通東京二十日發電話】滿洲國江防艦隊가黑龍江警戒線에 進出하야警戒任務에當함에잇서 蘇聯側의諒解를得하기爲하야 일즉부터蘇聯總領事의諒解를求하고잇섯든바二十日海軍省에到達한電報에依하면蘇聯總領事는 二十日滿洲國北滿特派員에게로 來訪하야 右에對한左와가튼回答文을手交하엿다

回答要旨
一、敬禮는相互의國旗의信號로서行함
一、艦隊司令官相互의訪問交驩을行함

右와如히蘇聯側에잇서滿洲國江防艦隊의領內에잇서서의行動에對한承認을하게된것은事實上에잇서滿洲國의承認이며國法上의承認의一階梯라고보이고잇다

文化의어머니 『카이로』訪問 (六)

【나포리】에서 李順鐸

【世界一週通信】

埃及의救國主 『사구룰·파샤』

有史以前은 모르지마는 埃及이 完全한獨立한國家로 잇어보기는 紀元前三千四百年으로부터 同二千年 即古代埃及의 第一王朝로부터 第十一王朝에이르기까지 所謂『피라밋』時代와 第十二王朝로부터 第二十王朝 即紀元前二千年으로부터 同一千百年에이르기까지 埃及의全盛時代인 中古帝國時代엿이요 그以後는 紀元後千九百二十二年, 二月廿八日에이르기까지 完全한獨立國家로 잇어본일은업다 即紀元前一千百年으로부터 同三百三十年 即第二十一王朝로부터 第三十王朝에이르기까지는 或은『애티오피아』(아비시니아)에 或은『앗시리아』에 또或은『페시아』(波斯)에 支配를밧엇고 紀元前三百三十二年으로부터 後六百四十年에이르기까지에는 或은希臘의또或은羅馬의屬領이엿고 六百四十年으로부터千五百十七年까지는『사라센』帝國의屬領이되엿고 千五百十七年부터 同千八百四十年頃까지는 土耳其의領土로잇엇으며 千八百四十一年以後千九百十四年까지는 土耳其의從國으로잇으면서 英國의保護를밧엇다 그리다가 世界大戰이爆發하야 英、土가敵이되자 英國은埃及을 保護國으로 宣言하야 千九百二十二年二月二十八日까지 繼續되엿다 亡한지三千年동안에 獨立運動이업슨것은안니겟지마는 埃及의獨立을 要求하는全國民的運動의發端은 自今後四十年前即千八百八十二年에잇고 國民運動이最盛하기는 千九百十八年 世界大戰의休戰後의일이다 이運動의來歷을 살펴본는것도 特別히 나에게는 興味잇는일갓다 이제그獨立運動小史를 試하려고한다

千九百二十二年 二月廿八日 英國은 英埃間의保護關係를廢止하고 埃及의獨立承認을 宣言하엿다 그리하야 同年三月我埃及王(朱丹)『푸아드』(Fuad)一世는 登極하야 陛下가되고 翌年四月에는 憲法이發布되여 埃及은 비로소 獨立한立憲王國이되엿다 如斯히埃及이今日의地位를가지게된것은實로最近四十年間 國民苦鬪의結晶이라할것이다 元來 近世에잇서서이國民運動과는 直接交涉은업지마는 猛烈한 獨立計劃이彼埃及中興의雄主오同時에 現王朝開祖인『모하멧·아리』(Mohamed Aly)로부터 되엿이잇다 即『아리』는 千八百二十三年에 土耳其의埃及太守로잇스면서土耳其에叛旗를들고 土耳其軍을擊破하야 埃及獨立을圖햇는데英佛露伊等列强의干涉으로因하야 雄志를이루지못하고 千八百四十年 倫敦會議의結果『아리』는 埃及의世襲的太守로承認되엿으며 埃及은名義上 土耳其의藩屬國이되는것을 다시盟約하게되엿다 現埃及王『푸아드』一世는 即『아리』의曾孫이다

現埃民的獨立運動의發端은千八百八十二年의 軍隊叛亂에잇는데 이運動의指導者는『아라비·파샤』(Alaby Pacha)이다 이事件은 彼의所屬인埃及軍隊의內訌에起因하야 軍隊와副王(Vicevoy)(太守의名稱은 千八百六十七年부터 副王의稱으로變換함)間에 爭議가생겻는데 이를乘하야 英佛의陰謀가잇고 宗主國 土耳其의干涉이 甚해서 이에關한 非難之聲이 國內에 놉하젓는데 이를憤慨한『아라비』는 同志와糾合하야 排外運動을이르켯다 그리하야 同年六月 亞歷山府에 大騷動이생겻는데 그結果 英國은軍艦으로 亞歷山府를砲擊하고 英軍은上陸하야 이에英國은 土耳其의從國의地位는그대로두고 埃及을占領한後 모든實權을가지게되엿스며 『아라비』는英軍에게 拘禁되며 錫蘭島에 流謫되엿다 『아라비』의이運動은 不幸히英國의 永久的占領을實現할機會를주엇지마는 그이는 實로國民運動의開山이며 『埃及人의埃及』을만들겟다는 獨立心에타는 愛國者로서奮鬪하엿다

다음에埃及國民으로서이즐수업는이는 『카멜·파샤』(Kamel Pacha)이다 『아라비』가軍隊的方面을 代表햇다고하면 『카멜』은政治的方面을代表한 國民黨의始祖이다 有名한『덴쉬와이』(Denchwai)事件에 英人의苛酷을咀呪한 埃及人들은 더욱 埃及의獨立、解放의소리를 놉히 부르짓게되얏다 當時『카멜』은 一個靑年法律家로서 奮然히 蹶起하야 이運動에 獻身指導한結果 二年만에 有力한埃及國民黨이誕生하엿다 이點은『간듸』와印度國民運動의關係와恰似하다 埃及人에對한彼의 思想的感化는 深大하야 今日埃及에는 熱風沙塵의荒村이라도 家家戶戶에 그肖像을거럿다다한다 이點은 孫中山의 中國人에對한思想的感化와 恰似하다

最近의國民的英雄으로 特筆할이는『사구룰·파샤』(Zaghloul Pacha)이다 埃及의 近世獨立運動에서 前記 二先驅者의功勞이 甚大한것은 旣述한바와갓지마는 그後繼者로 獨立의名稱을獲得한者는 實로『사구룰』이다 氏는 微微한農夫의子息으로 苦學하야 高等敎育을밧어가지고 政府의一局에드러가서 下級書記로잇엇는데當時埃及總監『크로마』卿(Lord Cromer)의信任을밧어 그推薦으로拔擢되여서 文部大臣이되여가지고 千九百十年에는 司法大臣으로轉하엿다 千九百十三年에 立法會議가創設되자 議員에被選하야 副議長까지되엿다 元來氏는國民黨의漸進派(親英派)이엿는데 英國의對埃態度는 結局氏로하여금 急進派(排英派)가되게하엿다 이點은 印度運動에잇서서의『간듸』의轉換과近似하다 印度나埃及의 國民運動指導者가 다ㅡ 처음에는親英으로부터排英으로轉하게되는것은 英國의植民政策에 우리가想像할수잇는一條의共通한源流가잇는것이다 排英派로變한氏는世界大戰中에도幾多의排英運動을 이르켯스나 氏의猛烈한活躍은 休戰後에잇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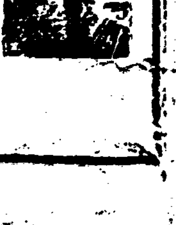
夕刊後의市況

大阪短期最終氣配
大新 一一五九〇（不變）
鐘新 一〇七五〇（二〇低）
日產 八五三〇（不變）
東新 一一九五九〇（不變）

橫濱生糸
當先 九四〇〇
引 八八〇〇〇

東京短期
東新 高 一九五〇 低 一九五二〇

人生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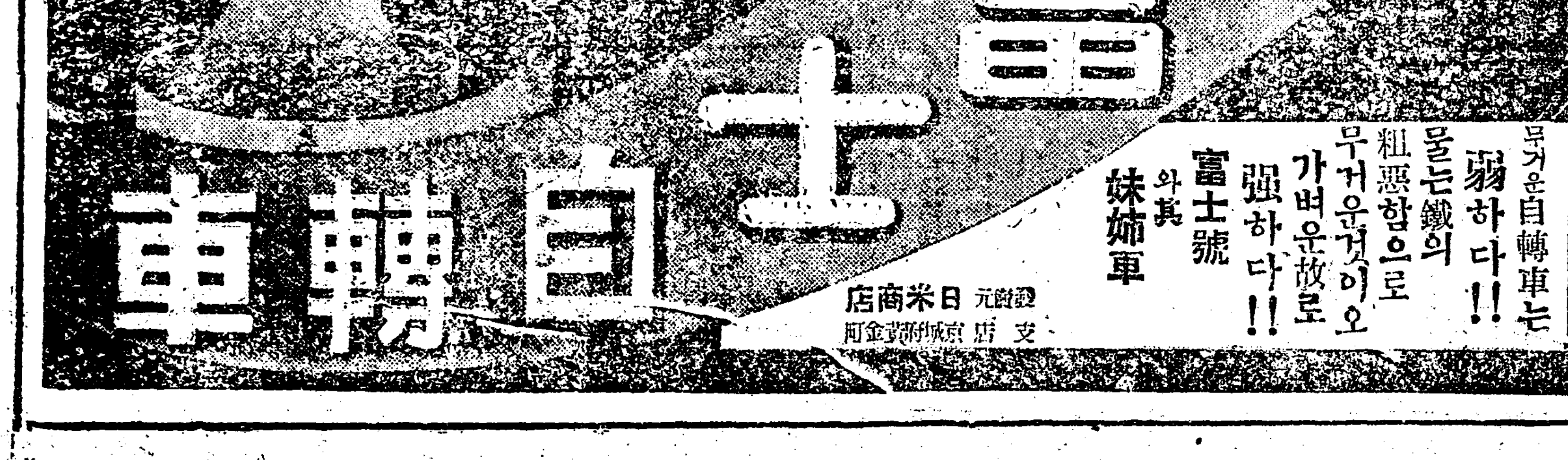
감초인 허물과 죄

긔차 철교에 쓰여지는 크도라한 철간 가는것을붙어연결 공상에 주문한 일세 잇섯다 철가의 다리의 길이와 그우헤 통행하는 긔차의 무게와 상당하게 청하게 계산을 요하는것이다 그리하야저부인(婦人)은 그 설계대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철액을 부어넣으로 만드는것이다 그런궁 긔술의 우열이 혹시 는 철가는데 공기가 들어가서 벌의 집과갓치 적은구멍이 만히 생기는것이다 그러나 부정직한 평부인은 그완전치못한 곳을 보이지 가토록 잘 덥허감촌다 그랫다가 마츰 시험하여볼 때에 그 철간이 중량을 감당하지 못하야 즉시 부러지고 마는 일이잇다 이와 갓치 만일 우리심령속에 감초인 죄를 인하야 썩어난 적은 구멍들이 이다 면제 아모리 그것을 각쪽갓치 가리여 감초달지라드 하나님의 시험에 한번 견니는 날에는 그 심판을 견대기 못하야 반듯이 패망하고야 말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잇스면 새로 지은것이니 이전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된다』하엿다

特許願中
新發明自轉車모ー다
本器를自轉車前輪에取付하면 速力倍加勞力半減積荷疾走經快視路快走效力偉大한好評嘖嘖特價壹圓代引三十錢 自轉車모ー다 注意各地方特約店歡迎 京城府都染洞六一 發賣元 東洋堂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신설고무工社 電話光一二一五

產金家의福音
高價買入
京城 明治町 金
金銀地金分析
合資會社 杉山商會



無期와十五年囚五人 證據品鑑定結果薄弱

疑雲김흔安東刑事殺害事件

檢事는原審대로求刑

작년 일월삼구일밤에 경북안동읍(安東邑)외딴집에서 노름을하다가 안동경찰서 형사천상(川上新作)에게 들키어 그자리에서 살해하야 천상형사를 죽엿다는 것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나 복심법원에서 십년내지 무긔의징역판결을 밧고서 불복상고한 조동래(趙東來)등 다섯명에 대한 살인사건의 제이회상고공판은 이십일오후한시 오십오분에 고등법원법정에서 증영(曾永)재판장심리와 손지은(孫致殷)검사의립회로 개정하야 피고들에게대한 사실심리가 잇섯는데 피고들은 여전히 경찰서에서자백한것은 고문을못견듸여 자백한것이오 사실상범행한일은전연업다고 부인하얏다 전번공판에증거물건을 경성제대 의하부 좌등(佐藤)박사에게 의뢰한일이 잇섯는데 그증거물가운데에 소위천상형사를 목침으로 때려 죽엿다는 그목침은 아무리검사해보아도 피무든 흔적이업고 또피고중한사람인 조동래의 버선등걸옷에 무든 피흔적은 겟헤서 무든것이아니고 속에서 배여나 무든것이며 다만벽에발렷든조희와 돗자리에 피가조금무든 흔적이잇섯는데 돗자리에 무든 피는 북도지방에사는 사람들의 혈형(血型)은 그런혈형이 잇스나 남도지방에사는 사람에게는 그런혈형이 업다고 감정의결과를보고하얏다 립회한 옥명검사는 천고 증거물가운데 그돗자리에 무든피흔적은 마저죽은천상형사의 피로인증하겟스며 피고들은 경찰서에서와검사정(檢事廷)에서 범죄사실을자백하얏고 예심정(豫審廷)에서만 고문으로인하야 자백하얏다고 주장하나 고문한증거는업다고하야 장시간동안 론고를한뒤에 복심판결대로 조동래(趙東來)에게 무긔징역 황석칠(黃石七)조용화(趙鏞化)안경호(安敬浩)등세명에게 십오년징역 강점목(姜點穆)에게 십삼년징역의 구형을하얏다 이에대하야 변호인은 약한시간동안 피고들에게 범죄사실이업고 또한 증거불충분하다는것을 드러서 무죄주장의변론을하얏다 판결긔일은 오는삼십일오전열시로 결정하고 오후세시반에 폐정하얏다

市場整理바람에 退去當할貧商團

群山府에大學陳情

【群山】 군산부직영(群山府直營)이영정(榮町)에잇는 상설시장(常設市場)안에는 재래부터 양편구석으로 사십여명의 가난한 상인들이 움막을지어노코 날근 석부시럭 넉마 엿 밥 기타여러가지의 날근물건을펴노코 그날그날 근근히 부지하여오던중 돌연히 부당국으로 부터 철건에 시장을 정리하겟스니 권부를헐어업새고 당국에서 지시하는대로 새로히 천막점포(天幕店舖)를 만드는동시에 상품두는궤도 지정한 최수에의하야 새로만들라는 명령이잇섯스며 십구일 까지 정리하지안으면 부에서 직접정리하겟다고하는바 그상인들은 지금은 도저히 실행할수업다하야 삼십여명점포가 결속하야 부당국에 진정서를 제출 하엿다고 한다

우리도귀찬소 加藤主任談

「우리는 참곤난한처지에잇습니다 부윤은 시장이빈민굴(貧民窟)가트니 속히정리하여서 미화(美化)식히지안하여는안된다하며 경찰서에서는 거번에개복정가로(開福町街路)에서 철거식힌 상인들을 수용하여 달라고하고 상인들은 자본이업서서 실행하지못하겟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엇더케던지 되겟지오 그리고 몰려날사람은업겟지오」운운

포機알라스카向

【電通하바롭스크二十日發】「그리룸」부근에 불시착한「포스트」「귀」는 이십일오전다섯시삼십분「그리룸」을떠나 딸벡「마일」을거처「하바롭스크」에 나타와서 사람들을 놀내게하엿다 「하바롭스크」에서 연료와식료품을싯고 긔체(機體)를 검사하고는 쉬지도안코 즉시고상의 사람이되어 오전다섯시오십팔분(일본시간오전열한시오십팔분)에「알라스카」를향하얏는데 이번코-스는 이천이백마일의 가장어려운「코-스」다

古蹟保存問題

법령은불원간되나 費用關係로又一難

조선고적명승보물 보존령은 머지안어 공포하야 즉시시행하기로되엿스나 이러한보존령도 돈이업스면 운용할수업서 시행에 곤난한점이 만타한다 보존령의시행으로 국보(國寶)로 지정된보물은 개인의소유일지라도 자유로 해외에보내는것을 금지하고 명승고적은 국비로보존하기로되며 다시어들수업는 귀한물건이 생각업는사람으로 말미아마 부질업시흐터지는것은 방지될터이나 보존령의시행에는 수리 보존가타에 막대한경비가필요하야 리상적으로하면 매년수백만원의 큰돈이잇서도 부족할터으로 겨우보존령이 머지안어공포되기로 되기는하엿스나 이에 드는비용을 과연재무국에서 내줄는지엇덜는지가 문제로 학무국에서는 이후로 부족에로력할터이라한다

警務局明年度 新規費四百萬圓

警備擴充과警官優遇等等

逐年强固化하는警察網

경무국(警務局)에서는 명년도 신규계획으로 경찰관의 실질적대우와 경찰활동상 필요를가결한 최소한도의 경비력확충을 하기로 결정하고 소요경비사백만원을 요구하엿는데 신규사업의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갓다

一、警察官의俸給引上

조선의 경찰관급봉액은 일본이나 기타외국과 비교하야 커를인데 일본의 평균봉급를보다 오원이상이 아래며도 한과승상 승급도 퍽더되여이원승급이 사년이나 걸리는상태인데 이에반하야 경찰의부담은 과중하야도 봉급증액식히는동시에 승급기간을 단축식힐터이라한다

一、朝鮮人巡査에게 宿舍手當支給

현재조선인 순사만이 숙사수당을 밧지못함으로 조선인순사에게 고등이다 그박게

一、警備船三隻建造

一、警備電話의擴充

一、羅津外警察署一個所外駐在所數個를新設할것

一、警察官增員約百名

飮食店團束

최근부내의「카페-」와식당에서 영업규측을 직키지아니하야 여러가지 폐단이만음으로 본정경찰서보안계(本町警察署保安係)에서는 이십일오후에서경에 관내당업자를 불러가지고 다음과가튼 주의를 주엇다

一、營業時間嚴守

二、女給雇入解雇屆嚴重實施

三、女給의店頭徘徊禁止

四、딴스絶對禁止

가라치丸離礁

【木浦無電局務通信入電】 십륙일 전라남도무안군 대흑산도(務安郡大黑山島)부근에서 암초에 걸렷든「가라치」환은 이십일 오전두시 구조선의조력으로 암초를버서낫다

全南海蔘禁漁 不遠에解禁豫定

方今實地를調査中

전남의해삼(海蔘)어업은 오륙년간 금어기(禁漁期)임으로도 당국의방침이라 해삼(海蔘)을가지고 오륙두달동안은 채취치못하게 되여잇섯는데 오륙월은 해삼이가장만히나와다니는시긔로 채취하기 쉬우나 칠월에 드러가서는 바위틈으로 드러가서 채취하기에 대단히곤난을늣김으로 오륙량월의 채취금지를 해제하여야달라는 진정이 매년잇섯든더로 금년도역시 여긔에대한 진정이잇슴으로 수산과에서는 서전(西田)기수를 파견하야 조사식힌결과 대체로해금하야도 조타는의견이여서 재차전남 수산시험장에명하야 상세조사중인데 멀지안어 해금될모양이다

大邱酷暑 九十七度九

卄日午後五時

【聯合大邱電】 이삼일래로 련일비등하는 수은주(水銀柱)는 미친듯이 올라가 십구일은삼십륙도, 이십일은 삼십칠도구분(화씨구십칠도구분)의 금년도최고긔록을지엇다

熱河阿片專賣處長 公金을着服逃走

安東縣에서結局被捉

【安東縣】 십팔일오후한시발 남행렬차에서 안동서원이 삼십가량의 일본신사를 이상히녁여 취조한후 체포하얏는데 자세한내용을들은즉 그는원적을긔옥현(埼玉縣)에둔 열하성조양아편전매공처장(熱河省朝陽阿片專賣公處長)으로잇는 무목유정(茂木有禎)(三九)으로 수일전아편관로돈 오천구백이십원을 가지고 일본으로 도주하는도중이라함이 판명되엿는데 무목은 십륙일봉천에서 일박하고 십칠일남행렬차로 출발하엿다하야 봉천서로부터 안동경찰서에 무전(無電)으로 체포의뢰가 잇섯든것이라하는바 무목은 봉천 평안호텔에 정부(情婦)군자(君子)를숨기여둔모양이라하며 체포통지를 바든 봉천서에서는 십구일 서원이명이 래안하여 무목을 바다가지고 귀봉하얏다

技競運動

【第四回水泳講習生一同】

岩間綠水上에 展開된競泳圖繪

水泳講習會初日盛況

灼熱한太陽아래 洗劍亭바위그늘에 놓실거리는紺碧의「풀」이가진부드럽고 싸늘한感觸과 水面이뿜는萬斛의凉氣는 무더위에시달리는 都市人을誘惑하이마지안는다

朝鮮水泳獎勵會主催本社運動部後援의 第四回水泳講習會는 二十日正午부터 豫定과가티洗劍亭水泳場에서開講되엿다 參加한講習生은 男女五十餘名에達하얏스며 大部分이水泳初步者인데도 講師諸氏의要領어든指導로急速한進步를보엿다

이리하야 第一日은盛況裡에마치엇다

三少年의 移動캠프隊出動

大東商業二年生 ○澄道(16) 徽文高普三年生 ○拓(17) 普成高普一年生 李鍾宰(15)三君은今般移動캠프徒步隊를 組織하야 十八日京城出發 一路京義線方面을走破할豫定이라는데 요사이가튼 三伏炎炎도모른다는듯이 徒步行走步하는 三少年의壯擧는 어린勇士의 氣槪를말하고잇다

今日의運動

▲第一回夏期籠球講習會는午前九時부터徽文高普코-트에서開講

▲排球(中等男子)午前八時부터 太平通基靑코-트에서다음과가튼順序로擧行

A 平壤師範——京城一高

B 京城師範——釜山中學

京城二高——A의勝者

善隣商業——B의勝者

▲都市對抗野球에出戰할全京城軍과殘留京城軍과의對抗戰은京城球場에서午後四時半부터擧行

若草町에 納凉夜市

무료로개방

약초정관음당(若草町觀音堂)에서는 이십이일부터 납량야시(納凉夜市)를개시하게되야 로점(露店)과 거동는무료로빌려준다는바 이야시에참가코저하는 사람은속히지원하기를바란다고

傍聽人은 卄人限定

五、一五公判에

【電通東京卄日電話】 오일오(五、一五)사건의 륙군측공판은 공판정이 좁은까닭에 방청자를 만히 수용하지못하겟다고 대책을강구중이엇는데 매번 이십명식만 허가하기로 결정하엿다 방청권은 매일아츰 사령부(司令部) 문압헤서 추첨하기로하고 법정안에서는 일체 부채를쓰지못하게하엿다고한다

勤勞母親爲하야 簡易托兒所設置

명년도부터전조선각군에설치

農村의自治的機關으로

농촌이 피폐하여감을따라 방안에들어잇든 농촌부녀의 옥외진출이 날로느러가 쉬는듯한터위에 경작로동에 종사하고잇는바 옥외로동이 왕성하여감을 따라 탁아소(託兒所)의필요를늣기하게되엿슴으로 총독부사회과에서는 전조선에탁아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위선그일보로 명년도에 전조선이백여군에 각군한곳식 농번긔에만 개설하기로 되여 이경비를 명년도예산에요구하엿다 탁아소는 도비로설치시키고 총독부는 보조를하기로 되엿는데 탁아소라할지라도 도회지의 그것과가치 대규모의것이안이고 경비와가튼것도 그촌에서 서로서로 보담할수잇는데까지 부담시키는 자치식의극히 간단한것을 만들터로 장래는각면각부락에보급할의향이라한다

五、一五事件 陸軍側公判

【聯合東京二十日發】 오일오사건(五、一五)륙군측피고(陸軍側被告)열한명에대한 공판은 이십오일부터 청산(靑山) 제일사단(第一師團)군법회의로서 심리(審理)하고 칠월이십구일 팔월일일 이 삼 사일의칠일간 증거를조사하고 팔월십사일에변론한 나음 팔월십오일 십륙 십칠 십팔일의 날자로서 공개재판(公開裁判)이열리기로결정되엿다

被殺日本人判明

【電通奉天二十日發】 지난십륙일 적봉(赤峰)과흑수(黑水)사이에 반만군에게 습격되야 학살당한일본인은 그보한중산조양서(中山朝陽署)원외에 조양분견고용원 상전모(上田某)와 세연국(稅煙局)원 목하모(木下某)의 두명인것이판명되엿다

自殺하는母親을 少女가싸와救出

십구일오후 여덜시 오십분경에 렬차가 평원선부선 서포(西浦)룡성(龍城)간부근에 이르럿슬때 선로우에서 녀자와 그의딸가대보이는소녀가 싸호고 잇는것을 발견하얏슴으로 급히 정거하야 무사하엿는데 그는 룡성면 류칠성(柳七星)(○)의처 리룡녀(李龍女)(二○)의 두사람으로 그녀자가 철로에뛰어드러 자살코자하는것을 그의딸이 모친을 구하고자하엿든것이라고한다

暴風警報

二十日午後四時仁川測候所發表

北乃至東風이强하겟고降雨가잇슬것이다 特히全羅南道沿岸은警戒를要한다 低氣壓의中心은奄美大島附近에잇서서 七百四十粍를보이고 北西로進行하고잇다

滿洲各地에蟠據한 反亂軍四千餘名

繁茂期를타行動中

【新義州】 번무긔(繁茂期)를압두고 만주각지에할거한 소위구국군(救國軍)등의활동은 점점적극화해가서 지난십칠일 까지 모처에 도달한정보에 의하여 압록강연안일대에 출몰하는 그들토병의수효를들으면 다음과갓다

桓安縣

董作順一派 五五○名

中山好一派 三五○名

李鳳圖 二五○名

桓仁縣

五龍一派 一○○名

寬甸縣

孫述瑞一派 七○○名

九龍一派 四○名

李往勝一派 三十名

野龍一派 四○名

雙龍一派 一○○名

安約寬一派 六○名

그外梁瑞鳳(朝鮮×X軍)約一○○名

鳳城縣

貴崇俠一派 二○○名

安晋好天一派 八○○名

安海較一派 一○○名

新安一派 八○○名

本溪縣

保國一派 八○名

總計四千四百名

殘黨또檢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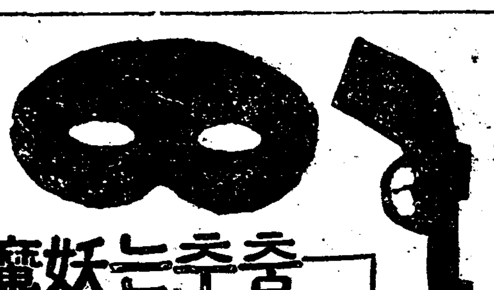
武器도多數押收

【電通東京二十日發】 경시청특고부에서는 각현경찰부와 련락하야 신병대(神兵隊)의 암살음모의 수사를 계속하고잇는바 군마현고긔시 련작정(群馬縣高崎市連雀町)황국농민동맹 신풍대장(皇國農民同盟神風隊長)룡택리량(瀧澤利量)(二六)은 지난십일일의 명치신궁교(明治神宮橋)의 신궁강회관(神宮講會館)다

內容複雜한生產黨 又復拳銃隊發覺

除隊兵、記者等도關聯

【電通東京二十日發】 거번에 체포된 생산당(生產黨)의 무긔계(武器係)일본교구 약송정 륙번지(日本橋區若松町六)제대병(除隊兵) 긔념품칠긔상(紀念品漆器商) 궁천총태랑(宮川惣太郞)(三三)과 모신문사원 암전일(岩田一)권기문삼(田崎文三)의 세명에 대해서는 그밧게더무긔를감추어 두엇으리라하야 경시청특고계이과에서 엄중이 취조한결과 일파의활동중심인 권총대의조직이 잇는것을 십구일밤 늣게이르러서야겨우알아내엿음으로 당국은아연긴장하야 권총대의 주요인물 고교모(高橋某)를신전구 담로정○○방(神田區淡路町○○方)을습격하야 칩사리 체포하야 신전 금정서(錦町署)에류치하고극비밀리에 취조하고잇다 고교는 입을다물고말을하지안으나 현재신병대(神兵隊)에야홈자루의권총이 감취워잇는사실을 알게되여 이것을감취둔장소에대하야 경시청에서는 거번체포된일파가운데 원우입가하정대화회회원(元牛込加賀町大化會員)세명이 군마현고긔시 연작정사십이번지(群馬縣高崎市連雀町四二)황국농민대장(皇國農民隊長)룡택리량방(瀧澤利良方)과 현대화회원(現大化會員)모등이 논아감춘것이판명되여 이십일은 아츰이래 이수사에 특고과원이 전력을다하고잇는바 이십일중에는 전부압수될터이다



춤추는妖魔 (4)

國際『스파이』秘話

暗中에빗나는恐怖眼 世界第一의蘇聯諜報

女子에게惑한背敎者의무서운末路 恐怖眼을避하야十階에서投身

露西亞秘密機關 G·P·U의組織體

세계의 어느나라를 물론하고 세밀히 조직된 과게와가티 첩밀하고 거미줄가티 복잡하게 얼크러진「스파이」망을가지고잇는것 모양으로 공산주의의 나라「쏘벳트로시아」에도역시『에·쎄·우』라는 비밀탐정의 조직이잇나 어느나라의탐정망(探偵網)보담도 가장 조직적이며 대규모의것이다 『에·쎄·우』의민활한활동을말하기전에 먼저『에·쎄·우』의 래력과조직을 간단히 말한다면 일천구백 십칠년 로서아에혁명의불길이 전로서아를 엄습하엿슬때에 공산당에는 반혁명(反革命)자를 암살하는 비상위원회(『체카-』라고하는것이잇엇다 그『체카-』에서가장유명하엿든사람은『체카-』의위원장『질친스키-』라는사람이니 당시에백계로인은 그를가르켜 살인마(殺人魔)라고하고 그의손에 죽은사람은『몃만』인지도모른다지마는 삼백만이라고 까지말한다 이와가치『체카-』의 행동은 극단적이고 용사업는 암살이다 혁명이지나가고 사벳트로시아의 긔초가튼은해진동에는 『에·쎄·우』즉 국가보안부(國家保安部)라고개칭하게되엿다

國內國外에서의 機敏한彼等으로

『에·쎄·우』는 국가보안부라고 일컷는만치 로농로시아 국내각긔관 고등경찰 긔관이되어 잇지마는 긔관관리(?)의 행동을 감시하는 이것이 동시에국외에 잇서서는 국외정보긔관이고 군사상 특무긔관인것은 물론이다 그런데특히『에·쎄·우』는 혁명당시의 체카의권능을바든만치 로농정치에 반동하는자에게는 추호도 사정보지안코 단연암살을하여 버리는것이 큰색이다 이것이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다름이업다 『에·쎄·우』는 국내에서 반공산운동을 하는 긔미가잇는자이면 용서업는 처재를가하는것과가티 국외에잇는 관헌도마찬가지로 비공산당원의 행동을감시할것가트면 엇더케해서라도 암살의 극형을주는것은『에·쎄·우』의 민활한활동으로 수행된다

國際都市上海의 케티멘손의事件

로서야는무긔관인『에·쎄·우』는 세계어떠한 나라 어떠한큰도시(都市)를 물론하고 업는곳이업지마는 각국의혁명객이 오락가락하고 각국의스파이가 신출귀몰하게 란무하는 국제도시상해에잇는것은 물론이다 상해에서『에·쎄·우』의 활동이가장 맹렬한것은 말할필요도업스나 그중유명한것은 일천구백 삼십일년의『케티멘손』의 와실리에프의 자살사건이다 와실리에프는 충실한 공산당원이엇스나 잘못하면녀자에게 밋켜서 돈에궁하게되고 돈을엇기위하야 적계(赤系)의 비밀을 공부국(工部局)에팔어버렷다 그러나 이비밀누득에『에、쎄、우』에서 민활한 활동을하고잇는 러시아탐정의눈을 버서날리가업섯다 결국 와실리에프는 암살을당하기전에 『에、쎄、우』의 맹렬한 추격이두렵고 무서워 십여층되는 놉고놉흔『케티멘손』에서 투신자살하엿다 이것이유명한 케티멘손사건이다 그러나 『와실리에프』가 공부국에 팔아먹은비밀서류는 그후에사흘이못되어 공부국창고에서는 자최를감추엇다 물론 공부국속에도『에、쎄、우』의 손이버터잇엇든것이다 (계속)

廣津渡에 鐵橋架設運動

人道橋改修를契機로 隣近郡과呼應聯絡

【廣州】 광나루(廣津渡)는 경성서 십일킬로되는 한강상류의 지점에잇서서 경성광주간자동차도로를 련락식히고잇는바 이도로는멀리 리천(利川)충주(忠州)강릉(江陵)까지 자동차가통행되는곳으로 일일간 통행자동차대수가 승합(乘合)화물(貨物)합하야 칠팔십대가 넘는데 여긔에다리가업서 배로련락하는 관게상 막대한지장이잇서 수년전부터 교량가설문제가 대두되엿스나 실현되지못하고 잇든차 금번 한강인도교를 뜨더 상류에가설하자는 문제가나자 이다년의현안(懸案)이든 도교(渡橋)문제를 실현코자 광주 박귀환(朴貴煥)씨와 령목량평(鈴木良平)량씨가 관계각군과 호응하야 맹렬한활동을 하는중인데 불원간실현되리라 하며 이후는 자동차시가도 만히단축되며 근기(近畿)교통상에 신긔원을지으리라고한다

◇매암이벌서수풀을웁조리다 (작일삼청동에서)

아동

미련의나라 (1)

朝鮮幼稚園 朴龍福

넷날에엇던곳에미련한이나라가잇섯습니다 이미련어나라에는 굴비가업섯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엽헤나라에가서 사다가먹는데 지금처럼긔차도업섯서 목걸어단기기때문에 한번갓다오는데도 퍽오래걸녓습니다 그래서 굴비를만히먹을수가업섯습니다 놉엇더커면 좀굴비를 실컷먹어볼수가잇슬가하고는 입맛을 썩썩다시며 생각을해도 조흔생각이모안납니다 하로는여러사람이모여서 머리를짜내고잇는데한사람이무릎을탁치고는 웃는얼골노 이러서서

『여러분 지금우리중에서 멋사람만뽑아가지고 엽헤나라에가서 굴비를사다가는 커큰연못에다가넛코 일년만두면새끼는처서 갓득해질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잡아서 먹으면만이먹을수잇지안습니가?』

하니까 듯고잇든사람들은 모도대찬성을하야

『올소!올소!』

하면서손벽을치면 법석입니다

굴비

그래 곳그자리에서멋사람을뽑아서는엽헤나라로 굴비를 사러보냇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손을꼽아가면서기다리고잇섯습니다 그사람들은 압흔다리를질질끌어가며 비지땀을흘녀가며산을넘고 들을지내고 물을건너서엽나라에가서 굴비를사서동에다가지고는 오래만에돌아왓습니다 기다리든사람들은 만세를불너가며 조화하엿습니다 그다음에는 연못가로쭉몰녀가서 사가지고온굴비를자나식돔식 다집어넛코말엇습니다 그것을보고는 너무도먹고십허서 눈을꽉감어가면서 참엇습니다 그잇흔날부터는 새벽부터일어나서 다름박질처서 연못으로가서는 드려다보고또아이들은 고사리가튼손을꼽아가면서조곰만잇스면 굴비를먹는다고날뛰면서 해지는줄도몰으고물속만 드려다보고잇섯습니다

이그림은 짐을실고단이는 오토비루 화광유치원(和光幼稚園)에 단이는 일곱살된 양회문(陽熙文)군이 보고서 그린것입니다

家庭

◇納凉◇ 6

寧邊石雲亭

령변의약산대(藥山臺)라면 그일홈이 그윽이익은것가티 생각되며 한번가보고십흔생각이 들게됨을 따라서 석운정(石雲亭)은 약산대와아울너 명승지에하나이며 동시에이로부터 오는바람이 석운정을거칠때는 더위를피하는 사람들의흐르는땀을 것게합니다 그런데석운정은 석운청을 고이고잇는바위가 구름갓다고하야정사의일홈을 석운이라고 지엇다고합니다

水泳講演速記 (5)

물에빠진사람구할때 잘못하면자긔가죽어

구하기전에먼저방법을생각하자

普成高普敎員 趙璞河

그려면수영에관하여는그만하고 이제부터는 구호법(救護法)에對하야 잠간이야기 하겟습니다

이구호법이라는것은 물에빠진사람을구하는법인데 엇더한때에잇서서도그럿치만더구나물에빠진사람을 보고는쓸데업시덤비기만하엿서는안됩니다아모준비도업시 물로뛰여들어갓다가는 큰변을당하기쉬운것이며 위험하기짝이업는일입니다 물에 빠진사람은생사를일코 안될는순간에잇는것으로 풀대한줌거리만손에 것칫하여도쥐것못삽고죽을때까지노아주지안는것이물에 빠진사람의생리적본능(本能)이며 순가심리적상태입니다 그럼으로 그냥물에고뛰여들어갓다가 물에빠진사람이 럭업시

손에닷는대로 힘을다하야 꼭붓잡고 누하 주지안흐면 몸을자유로움즉일수업는것임으로빠진사람을구하기커녕두사람이모다위험하게되여생명을빼앗기는폐가적지안이합니다

불행이 이러한경우를당하엿슬때에는 심호흡을하고 정신을 수습하여 물의빠진사람을 더욱물속으로 모라너허.물을만히먹게하야 정신을차리지못하게할것입니다 그리하야긔진맥진하여진 다음에 끌어내일것입니다만 이것은말하기쉬운일이고 실행하기어려운일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경우에위험을면하기위하야 평상시에련습을하여둘필요가 잇는것입니다

만약 물에빠진사람이 압흐로 달겨들을때에는 정신을차려 두손구락을 펴가지고 그의두

코구멍에 너어가지고.뒤로미롤것입니다 그리하야그가물속에뒤루잣바지게될때 손구락을빼으면 지금까지숨이맥혀급하는순간에 물을울걱마시게됨으로 그는정신을차리지못하고랑때하야 붓삽엇든것을풋케됩니다 그리고 뒤로붓들렷슬때에는 자긔자뒤로잣바지면서 물에빠진사람을 더욱물을먹게하여서 그의맥을아조쐐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엇겟든 물에빠진사람을 안심식히어서 쓸데업시겁을내며 덤비도록하지안어야합니다 그리하야물속으로숨박질을하여 물에빠진사람의두다리를 서안어잡어들어서 그의배를넘쳐다리로밧치고 목을하딸로새안고 헤염을처나와야합니다

만약 물에빠진사람이 정신업시 야단을치어 자긔도의험할지경에 니를것십거든 그를물을먹이어서 가사(假死)를식혀 살고나와야합니다

학교에서가정에 방학을압두고 〔6〕

활동력을갈느지자

△그래서자긔의능력을알니자

附屬普校主事 岡毅氏談

여름방학에는 무엇보다도어린아이듣는 너머사녀들을 구속하여서 공부만히여라하고 억지로공부를 식키지말고 아츰마다 이런나서 마당의 티끌을 쓸도록안다든 정의 일만안이라도 또는 가정을떠나서 자긔자신이 능히할수잇는것이면 무엇이든지 해보도록하야 실제적자긔활동의 능력을알도록하는것이조켓습니다 그래서고락을자연 알게되면 장차 자라서도 그것에 큰도음이 잇슬 것입니다

자신의 활동력을 길너주도록하여야하겟습니다 학교교유이란 언제든지 모방적인동시에 그러케실제적활동력을 길너주시는 분지.또는 기타가정에 대한 일을 하인에게식키지말고 자녀들을 식키여서 가정살림의실습을 아이들사신이압도록하며 또는 가

약효가잇는 여름의과일들

◇수박、외、년감、호박、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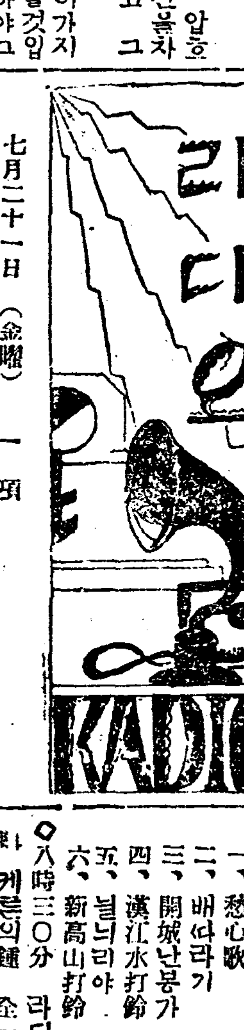
녀름철에잇서 무엇보다도체소가 조흔것은 이루말할것도업는것입니다 갑도아조싸고맛도펀치안코 게다가 영양가도상당히잇스니 무엇보다도조흔것입니다 더욱히『토마토』라든가 외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수박가튼것은 더욱조흔것으로거긔에는 약효(藥効)조차잇슴으로 여려분은 만히잡수실것입니다 이제 그약효에대하야간단히 적어보겟습니다

토마토 이것은속담에 일년삭이라는것인데 이것을조와하는 사람에게는위장병(胃腸病)이업다고 할만큼 소화를잘시키는것이며 체하엿슬때에도 이것이퍽조흔것이며 리뇨제(利尿劑)로서도 상당이효과가잇는것입니다

외 생으로 물을짜서발르면 땀띄가나게하며 손이나발의브종(浮腫)에는 이것에초를조금처서 발르면 잘낫는것입니다 이것은 리뇨(利尿)작용지갈(止渴)작용이 적지안은것입니다

호박 륵간시경통(肋間神經痛)과 건성늑막염(乾性肋膜炎)에이것을 구어서붓치면 동통(疼痛)을 퍽이 하며 이것의 씨를 말이어가루로 만들으면 송백충(寸白虫)의구제제(驅除劑)가 됩니다 그리고그의넝쿨을태워서 흑당(黑糖)과석그면백일해(百日咳)의 약이되며 삶은호박은 당뇨병(糖尿病)에조흡니다

수박 이것의 약효는 벌서 세상이 다아는것으로 그의 리뇨(利尿)작용은 다른엇던과일보다도 가장유월한것으로 림질(淋疾)가튼데 퍽조흐며 신장병(腎臟病)당뇨병(糖尿病)부인병에 유효한 것입니다 그외



七月二十一日 (金曜)

第二放送 (波長四九二米)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料理法 日用品時勢 京城府廳發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〇時五分 楊琴과紫霞
一、平調會遊 二、관念佛 三、바아타령 四、南山道 五、青春歌 六、아리랑 七、梧桐나무
楊琴 閔完植 紫霞 高敏德
◇同〇時四〇分 뉴―스 繼續하야野球試合實況―京城運動場에서
◇同二時 衛生講座 安産과그病理 李在崐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童話 棄老國의孝子 金泰洽
◇同六時二五分 農業講座 稻作改良에對하야(二) 金雄珏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話 夏季休暇利用에對하야(一) 白南奎
◇同八時 南道雜歌
一、보렴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자진六字백이 五、흥타령 六、날개타령
金如蘭 朴香草
◇同八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캐른의鐘 全一幕 世專劇俱樂部
◇同九時 四道雜歌
一、愁心歌 二、배떠라기 三、開城난봉가 四、漢江水打鈴 五、늴늬리야 六、新高山打鈴
金玉葉 李眞鳳
◇八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캐른의鐘 全一幕 世專劇俱樂部
◇同九時三〇分(A) 氣象通報 뉴―스 時報
翌日프로그람發表

衛生講座 (午後二時)
安産과그病理 (三日間) 李在崐

數年間大學病院解剖室에 오는 姙娠中死亡者 統計表를世界各國統計에 對照하여보건대 其中에朝鮮婦人의死亡者數는 他國에到底히 比할수업슬만치만습니다 그根本原因은畢竟姙娠에對한常識的智識이 一般으로 普及되지못한데잇겟고 다음이 여긔對한 새智識의所有者인助産婦의數가不足함에잇다고 밋습니다

順序로서姙娠에對한말슴을하고 그다음에 子宮속에서 자라나는模樣과月數과의關係 姙娠期限 姙婦가姙娠中에 직혀야할衛生과 그에對한注意事項멋가지 即安産의秘訣을여주드린後 姙娠中에오는 가장무서운姙婦의病 即姙娠性逆症 心臟病腎臟炎 呼吸器病 子癇 脚氣等의原因과症勢 一般家庭에서能히할수잇는豫防法과 治療法을簡單히紹介하며 所謂不姙症의原因이 족히男子에게잇다는原因과 그에對한批判 新聞紙上에서각금보는 想像姙娠이니子宮外姙娠이니 葡萄狀鬼胎이니 其他複胎或은三胎의原因과 生物學的意義 그리고姙娠中胎兒死亡 또는流産에對한 一般家庭的常識을紹介하야 安産의病理學的考察或은 批判을加하고저함니다

農業講座 (午後六時二五分)
稻作改良에對하야(三日間) 京農敎諭 金雄珏

産業增殖計劃의擴張과 農事改良의德澤으로 米의生産額은 一千五百萬石을 突破하고잇습니다 그러하야農家作人의利害를打算하면 營利로만은 비農事를不安하는 사람이 업슬것갓습니다 쌀을常食하는 吾人은不可不自家의食糧問題만으로도 利害의打算을떠날수밧게업스며 畓의面積은 耕地總面積의約三分之一이오 米産額은農産物額의約五分之二를 占領하고잇습니다 쌀의地位는 朝鮮農業界에잇서서 如斯히重要하지마는 그栽培의技術이나 其他에잇서서아직도幼稚의境을 脫치못하고잇습니다 이에稻作의技術的改良에對하야 멋가지要領을말코저합니다 一、土性과品種 二、苗代의改良 三、移秧의方式 四、肥料 五、除草方法 六、病虫害의防除方法 七、收穫과調製

講演 (午後七時三十分)
夏季休暇利用에對하야 白南奎

이夏季休暇야말로 重要한年中行事의一인데 一般的보다도學生을中心으로하야 第一日은學父兄諸氏에게 第二日은學生諸君에게말슴하고저합니다 一、休暇의意義 二、夏休의重要性 三、夏期休暇利用 1、個人的行事 가、規則的行事 나、鍛鍊的行事 다、探求的行事 라、修養的行事 마、準備的行事 2、團體的行事 가、野營生活 나、唱歌와遊戱 다、啓蒙事業 라、保健運動 以上의말슴을드림으로써 가장意味가잇는夏季休暇를지내고健康한몸으로 內容이豊富한日誌를 準備해가지고登校하기를바라라합니다

第一放送順序
七月二十一日 (金曜) (波長三三三米)

▲午前六時(A)講演 全國聽取者に對する激勵の辭 陸軍大臣 荒木貞夫 ▲同引續き ラヂオ體操 ▲同六時三〇分(A)基礎英語講座(終講) ▲午後〇時五分 琵琶 保健ラヂオ體操 ▲同二時 家庭講座 話 ▲同六時二五分(B)基礎佛蘭西語講座(終講)目黑三郎 ▲同七時三〇分 婦人の夕講演會 1勝光亭地先より中繼 ▲同九時(A)關出川開き實況

◇明日順序◇
七月二十二日 (土曜) (波長四九二米)

▲午前一一時五分氣象通報料理法 日用品時勢 京城府廳發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〇時五分 映畵이야기 봄소나기 朴應冕 音樂伴奏 ▲同〇時四〇分 뉴―스 ▲同二時 衛生講座 安産과그病理(二) 李在崐 ▲同三時 野球試合實況―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四時 뉴―스 ▲同五時 職業紹介事項 ▲同六時 童話 고흔손(?) 金寒松作 ▲同六時二五分 産業講座 稻作改良에對하야(三) 金雄珏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話 夏期休暇利用에對하야(二) 白南奎 ▲同八時 唱歌劇 安時永 ▲同八時三〇分 大監노리와巫女 鼓手韓成俊 ▲同九時(A)피아노協奏曲 野村美智子 ▲同九時三〇分(A) 時報氣象通報 뉴―스翌日順序發表

얼골이미운녀성은

추한얼골이라도 「절세미인이돼」

깃버하십시요

현대의 모던녀성의화장(化粧)술이란 참으로 놀랄만큼발달하야진것은 세계의공통된현상으로 권허원색(原色)을 보히지안흘리만큼 칠한연지(臙脂)두텁게발은백분(白粉)게다가미를위하야 거미도외고 눈섭도붓처어 거이 원얼골을 나타나이지안케되엿습니다 현대최근에는 휘랜드(芬蘭)의 수부럭성포ㅡ르스」의 어떤 미안술사(美顔術師)는 『울트라·모던』녀성을위하야 『만듬은얼골』『만듬은코』를고안하여 부인에게시험하여본결과 퍽조흔성적을어더볼원간에 팔기시작하기로되엿다고합니다

위선『만듬은얼골』은 사람에게따라 알맛게스리여러가지빗과 모양으로되여잇서 이것을붓치고 웨만한 활키쓰를하여도 그것이 떠러지거나 부스러지거나 하지안케되엿스며『만듬은코』는또 그형상의미려한것이 릉비술(隆鼻術)이 감히따르지 못할련한것이라하며 또적은눈을 크게보히게하며 흐린눈을밝어지게보이도록하는『눈가풀』도 엇다고합니다 압날로는아모리못나게생긴부녀자라도 이런것을 교묘이 사용하면 모다 미인이될것입니다 이것은못생긴녀자의가장 리상적구호신이라 할수잇슬것입니다

世界를 舞臺로 活躍하는女性 (4)

새아녀사는 독일의어머니

△그는어떤조건을웨첫나

『하나님은 게시지아니한곳이 업스니 가정에서 진심으로 긔도를 올닌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긔도를 물론 긔를하게 밧으실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보혈을흘니신것은 우리의죄를대속하려하신것이다 그죄로서의가장 큰죄는자긔를사랑하지아니하는것이며 자긔이웃을사랑하지아니하는것이며자긔의 조국을사랑하지아니하는것이다 이제우리가레배보는시간을절약하고그시간을리용하야 경제적생산을하는것은 즉우리가권패국의국민이된자긔를비롯하야 자긔의이웃 자긔의조국독일을사랑하는것이라』

하얏습니다 그는 이상과가튼 리유아래 에서 먼저일요일하로를 권과가티 례배당에서 허비하는것을 극력으로반대하얏습니다 그리고 그는또한 가정생활개선의 가장필요한조건으로서 세가지의표어(標語)를지어 뭇니 각가정에선전하얏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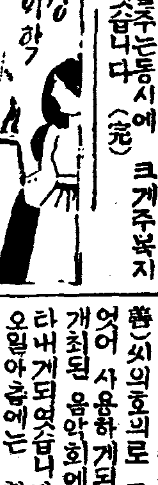
일、정리(整理)하자!

이、부즈런(勤勉)하자!

삼、액기(節約)하자!

이세가지 표어중에 정리하자는것은 매우그의미가 깁다합니다 즉 다른것이아니라 독일은 대전이후에 큰병통을밧엇느니만큼 정신상으로 육신상으로 무엇이나 제자리에노흘것을 노치못하야 정신상으로는 부허하야 갈팡질팡 하게 되고 육신상으로는 사물에 진착력(執着力)이 엽서 종업의 능률이 떨니치못한다는것입니다 그럼으로 모다 정리주의로 나가는것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절대로필요할것은 물론이나를히가정적으로서 필요하다는것을 주장하얏습니다 대과연그의정리주의는 정부에서도 매우찬성하야 후원하는데 까지에 니르럿다합니다 하여간 독일은 권패이후에 녀성계에서 를볕이 로력하는것은 각국사람이 탄복을 마지아니하는바 저ㅡ가정생활개선주의는 여려나라 녀성들에게 크게주목되엿습니다(完)

가정의학



【문】 이십삼세의 미혼청년이데 폐엽가다루에걸렷는데 처음은삼십칠도이삼분이고 권태를늣깁니다 기침과담가튼것은업습니다 이에대해처방을하교하여주시오 (一患者)

【답】 처방
파고ㅡ루 一〇、〇
피라미돈 三、〇
유당 五、〇
우일일량우 삼포식후삼십분마다 (醫學博士 任明宰)

赤壁江거친뒤

乙密臺올나서

◇京保巡廻音樂片信 (2)

平壤서 洪蘭坡

신천을떠난일행은오후한시오십분에황주(黃州)에도착하야제이회의연주회를 그곳장로교례배당에서 열게되엿습니다 금년여름치고도 여러단체가 황주에들느겟다고 교섭을해왓스나 모든준비의관계로 실현이 되지못하고오직 우리순회연주 단만이아지방에서 연주를하게된것은 생각하면 우리로서는처음이고가뭄히진듯합니다 다른별이이번에본 =연주단=을 위하야 만흔 활동 다 갓가히안주로부터 멀니는철령신경등지에니르기까지십여곳에서 우리일행을 마지하겟다고하는 글을밧을때에우리는 성심으로감사함을마지아니하는바이 … 과 로력을해주신 리인선(李寅善)씨의호의로 그의 피아노를 엇어 사용하게되엿것은 황주에서 개최된 음악회에 한큰이채를낫타내게되엿습니다 잇튼날인 십오일아츰에는 황주의명승지오 조선의고적의 한아로유명한 적벽강(赤壁江)월파루(月波樓)에 올나서 몸과마음을 시원히한후 일동의 긔념촬영이 잇섯습니다 때마츰 거문구름이 하늘을뒤덥고 은구슬가튼비가 쏘다지기시작하야 일행의의복을 몸에겁친채로 세탁을해버렷스나 일행은조곰도 원긔를상함이 업시각각려관에 도라와서 행장을수습한후 자동차로

=정거장=에 달녀서 오후 한시오십이분에 평양을향하고 떠낫습니다 한시간만에 평양에도착한 일행은 이날밤 음악회를주최한광청고보교의 여러선생님과 조선일보지국의 여러분 그밧게이번우리일행을 위하야 크게활동하신성악가 권태호(權泰浩)씨 외에본교교수 오천석(吳天錫)씨 외와음악관계자 다수의 출영속에 일행은원긔왕성하게나렷습니다 이날에는 리회녀권음악단숭실전문음악단등의 순회 연주로인해야 뒤늣게간우리일행은 생각이외로 성황이되야 회장이광청고보교대강당은 정각전에 입의만원을 일우엇던것입니다 경성을발이후 매일밤마다 연주를행하야 모다큰성공을 일운것은무엇보다 일행이 깃버하는일이지마는

=압흐로= 가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래일부터 시작하야 이십이일까지 일주일동안을 매일밤연주할것을 생각하매우리는무엇보다도휴양이필요함을늣기게됩니다 다행히 오늘은 일요일임으로 일행은평양의금수강산에서 충분히 쉬이게되엿습니다 평양에도착한후 귀사 평양지국을배방하엿다가 산가치 싸여잇서서 우리를기다리는 각지로부터온통신에 우리는 깃부기도 하엿습니다 햇스러니와 놀납기도 하엿습니다 지마는 일정의 관게라던지경성귀착후의 여정한일과 상치되는 관계로 본의는아니나망정 여러지방유지의 간곡하신 부탁을저버리게되야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웁니다 … 남포로 가서연주회를 개최하겟습니다 (十六日아츰平壤서)

병창 (54)

보이는것마다

人形의집을나와서

【一名. 노라의後日譚】

【54】 蔡萬植 作 吉鎭燮 畫

순처지아이하는것 (5)

노ㅡ라가 소적동집으로 도라온것은 혜경이가 옥순이와 한참 오늘 이약이를 하고잇는판이엇섯다

혜경이는 노ㅡ라가 도라온것을보고 입맛을 다시엇다 옥순이도 혜경이에서 노ㅡ라가 어쩌하면 도루 드러가서 살게되리라는 말을 듯고잇든 쯧치라 일변 안되엇기도하면서 그러나 일변 반갑기도하엿다 이러운 서울바닥에서다만한사람 힘업고잇는 노ㅡ라가 엔남편을 차저드러간다면 자긔는 어찌하라십혀 은근히 걱정을 하엿든것이다

세사람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아모말이업시 한동안 안젓다가 옥순이가 일어섯다

『어니 점심 잡수서야지』

『먹구십잔타』

노ㅡ라는 넉시 나간듯이 벼람박만 바라보다가 혜경이에게 하소연을 내놋는다

『세상에 자식이 애비는 애비러니와 어미업는자식이잇수? 다모리 어미와 아비는 서로 남이되엿기로서니 자식이 둘이나 셋이잇스면 그중에 하나는 어미가 데려와야 할게아니요?』

『데려와도 조키는 하겟지만 그애들로보면 저의 아버지한테잇는게 낫겟지……또노ㅡ라도 모아둔 재산이 업겟다 데려다가어떠컬려구그리우?』

『그러치만 억울허잔수?』

『무엇이?』

혜경이는 노ㅡ라가 게동집에 갓다가 현과 충돌된것을몰으는때문에 그의 하는말을잘 알어듯지 못한다

『글세 현이 네게는 궐리가 업다구 딱딱 얼너대은구려! 그래 하두분해서 진고개 어떤 또호사를 차저가서 재판을 할수기 업느냐구……』

노ㅡ라가 말을 뭇기도전에 혜경이는 실소를한다

노ㅡ라도 흥분이 만히 가러안진다음이다 변호사를 차저가고 재판할 궁리를 하고 이한것이 ㅅ는 우수어서 혜경이를떠러 우섯다

『그러치만 글에 그런동의범률이 어데잇수?』

『글세 욕심가래서은 셋이라도 다 제셔왓스면 조켓지만 하나라도 데리고 잇스면괴로워요……괴왕 이러케된바이거든 다ㅡ달념을 허구려!』

『감옥이야 햇지만 잇저지잔는걸 어떠커우? 아모소식도 아니듯니는데 가거잇다면 물오지만……』

『그러치만 애비업는 자식을 홀어미 혼자서 데리고 짐느기는 못할노릇이야』

혜경이는 전남편에게서 생긴 어린아이를 혼자 어떠케 길으든일을 생각하엿다 그러나 이러케 말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지아니하엿스면 하는 그리운생각도들엇다

『이 안잇든……』

하고 혜경의말을바더 옥순이가 이야기를 끄낸다

『아들하나 달하나 남편테스룹다섯에 혼자되엿대요』

『주인이 과부가?』

혜경이가 뭇는다

『에……』

『지금 멧살인데?』

『스물여 됨이라든지……』

『가엽서라……문패에 한정희라고부튼게 그인게로구먼?』

『예 한씨래요』

『지네는 어떠케 그러케알엇나?』

노ㅡ라가 우스면서 뭇는다

『악가 그집 식모가 와서요 와서안저서 종알 종알 이약이를 하드만요』

『그래도 재산이 좀 잇는게지……이런 집이나마 한채 지니고 사는것이……』 시방

『업대요 아모것도……』 살어가기는 남편이 살엇슬때 당기든 X X 에서 불상하다고 한달에돈십원식 준다느만요 그것하고 또 들아우 방에다 학생들을처서 살어가는데 늘 살님이 몰닌대요…… 그래서 이재도 뜨여서 전세를 노앗다는데……』

『로인도 하나잇지요? 일가친척 는데……』

『친정어머니랍디다』

이사람구는 그 오라버니하나완 고사리잇는 친정어머니하이래요』

『채령새가 신녀성이지?』

『학교공부를 만히 햇대요』

『비파부가 향홀안에 잘도모혓다!』

노ㅡ라는 이러케 중얼거리며 고소를하엿다 혜경이도 떠데 웃는다

『나도 서방을 아니어멋스면 와서 한목 여염집그렇지! 한번』

『참 옥순이는 그집에 차저가보지?』

노ㅡ라가 무엇을 문득 생각하고 옥순의 눈치를살피며본다

티끌모아泰山
禁酒斷煙代六萬五千圓
百十八人이三年半貯蓄分(廿錢式) 協同殖組員의盛擧

【平壤】평양협동식산조합은 소화오년 사월부터금주단연(禁酒斷煙)자는데금이십전식을 매월거금하는 회원 백팔십칠명이 만사십개월간 저축한총액이 륙만오천사백삼십사원사십칠전에 달하엿고 그동안중소상공인(中小商工人)의 상업자금(商業資金)과 농업자금(農業資金)으로 거리 융통하여 큰공적을발휘햇고 금년오월십일까지 출자금을 입완료(拂込完了)를끄하야금후 일반에게 금융의 편의를주기로 하는일방 상공도시 평양에적 합한 사업을 기도하기로계획중 이라한다

定期總會열고 名稱、規約變更
◇……一般任員도改選

【平壤】평양 협동식산 조합(協同殖産組合)에서는십삼일하오오시부터 백선행 기렴관에서제칠회 정기총회를개최하고 동조합장리기섭(李起燮)씨사회하에서 다음과가튼사항을 토의결정햇다한다

◇討議事項
一、第七回財政決算報告
一、營期組合經過狀況報告
一、組合名稱及規約變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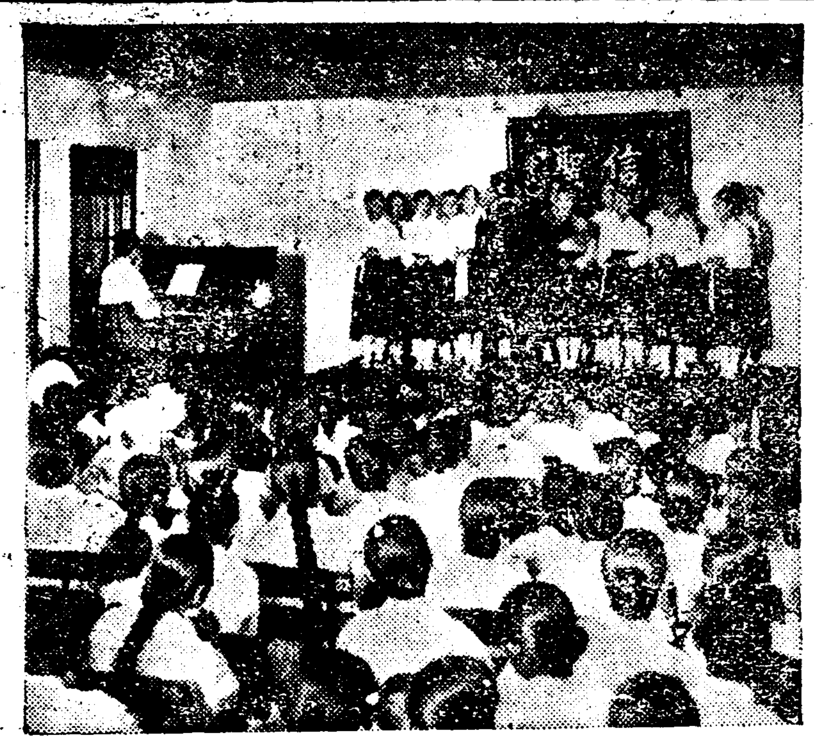
◇任員改選
組合長―李起燮 ▲副組合長―吳胤善 ▲書記玄元謙 會計―趙昌鉉 安國保 監査―崔鉉傑 金泰善 金燦鏞 朴楨閣 咸華龜 評議員―金鳳俊 安昌鉉 韓東鮮 郭斗榮 黃英燁 金光信 李承根 李文赫 李泳夏 鄭文永 顧問―曹晩植 姜炳駿 李寬璨

二大名勝地 探勝團員募集
―妙香山과蝀龍窟―
◇本報平壤支局主催

【平壤】본사 평양지국(平壤支局)에서는 독자제씨의요망에 의하야천하절승묘향산(妙香山)과 지하금강동룡굴(蝀龍窟)탐승대회를 주최키로되엿다 팔월오일하오십시오십사분 서평양역을발하여 묘향산을 탐승하고 다시동룡굴에이르러 자유의 탐승공개를 탐승한후 륙일오후구시십오분 귀향하는 로순으로 긔차임(汽車賃)자동차임(自動車賃)식비(食費)점심(點心)까지 전부부하하여 려비는왕복십원으로 결정되엿다 묘향산동룡굴 탐승단에가입을 희망하시는인사는 칠월삼십일까지 본사평양지국에 신청하면 다원숭을 교부키로 되엿다한다

要求大部分承認 罷業團一時就業
·朝運支店罷業後報

【大田發】긔보=지난십팔일에 조선운송회사 대전지점(朝鮮運送會社大田支店)인부 일백이십여명이 사대요구조건을 회사당국자에게 제출하고 총동맹파업을 단행한사건은 우금까지파업이계속되며 백여로동자는 소케(蘇堤)철도공원에 회집하야 살기등등하게 항쟁방법을 토의하든중 대전경찰서 고등계형사대와 경찰부 현사등이 달려가서 쟁의단을 해산시기엿다 이에분개한 쟁의단원등은 운송회사로 몰려와서 산북(山北)지점장과 담판한결과 산북 지점장으로부터 임금인상의대부분과 대우개선 금번사건에 희생자 내지안할것등은 드려주겟다고 쾌히승락하고 최모(崔某)장모(張某)송성(松成)등의 해고문제는 인사관계인것만치 즉시 어려케할수업스니 여러분이 취업(就業)만 하면충분히 고려한후에 원만히 해결하여 주겟다고 언명하얏슴으로 로동자 일동은 그서당당하게 원터로나갓다고한다



就業은條件附 事不如意罷能
罷業團員 某氏談

파업단원중 모씨는 말하되 이번파업이 모하야 임금이 어느정도까지 올느고 희생자아니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니다마는 십장세사람을 내좃지못하고 보류한채로 취업하게됨은 크게유감이지만 이것이 원만한 해결이 아닌것만치 우리역시 원시적취업에 지나지안습니다 회사측에서 만약 식어하는때는 단연 재파업을 단행하겟습니다라고말하며 의긔양양하엿다

空閨가실혀서 虛僞强盜告發

【平壤】십구일오전삼시경평양부내암정(岩町)십번지리영월(李永月)의집에는인조의강도단이 처입하여 리영월의안해조삼녀(趙三女)(二六)를별으킨후칼로 협박한후 한놈은두지속에서 현금이십원을 강탈하고 또한명은 조삼녀머리칼을 사촌(四寸)가량이나 잘러가지고 달아낫다는급보를듣는 평양서에서는 현장에급행하여 범인을 엄탐하엿스나 조삼녀의 수상한점이잇슴으로 취조한결과 조삼녀의남편은 약이개월전부터 첩을어더가지고 자긔를천대로 돌아보지안코 공규만 직히게하엿슴으로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녀자의마음에서 나온 허위신고인것이 판명되여 허위고발자로 처벌을당하엿다한다

다 부인회에서는 어긔회를리용하여 일반녀성에뜻잇는 회원부로돈을 모집하고 이대대적으로 부인단체로돈돈 긔초를세우려고 간부간에 활약중이라 한나

道會議員의暴言問題
糾彈聲明準備

【淸道】경북도회의원박재영(慶北道會議員朴在永)씨는청도매전면호화동 화재이재민 구제발긔인(淸道梅田面好化洞火災罹災民救濟發起人)의 한사람인 본보청도지국장 배정찬(本報淸道支局長裵正燦)군에대하야 발긔인일동을상식하다는동긔로 발의 폭언을 무엄한것이동긔로 발긔인일동은 박재영씨의 폭언에 분개하야 목과성명서(糾彈聲明書)를 돌려그의전후태도를폭로코저함으로청도경찰서장 (淸道警察署長)은 사건의중대성을알고극력 조정의입에당코저하나 발긔인일동은 전긔박씨가 자긔의말을 취소하기전에는 조곰도 양보치 안을모양임으로 일반은동사건의 금후전개를 매우주목하고 잇다한다

負傷者廿四名 相互告訴準備
忠州農樂團衝突事件

【忠州】긔보=충주군금가면매하리(忠州金加面每下里)농악단충돌사건으로 부상한자 이십사명중월상리측(月上里側)십팔명은충주읍동양려관(東洋旅館)에 매하리측(每下里側)사명은충주읍중원려관(中原旅館)에각각 유숙치료(留宿治療)하며서로고소제기할것을 준비중 이라는바 이두동리에는 전과와가티 부상한자도만커니와 또 경찰에피검될자도 만흘것임으로 한참분망한농번기에잇서서이월상(月上)매하(每下)두동리는폐농상태에 잇다고한다

强盜、殺人、放火 亦是死刑求刑
强奪額은一圓五十錢

【平壤】평북정주군고덕면관해동(平北定州郡古德面觀海洞)김덕명(金德明)(三○)에 관한 강도살인(强盜殺人)방화(放火)피고사건의 공판은 십칠일오후삼시부터 평양복심법원 좌등(佐藤)재판장주심 백무(百武)고도(高島)량관사 배심횡전(橫田)검사립회로개정되여 상세한심리를한 후 횡전검사는사형(死刑)을구형, 판결언도는이십일에 하기로 되엿다

피고김덕명은 소화륙년 가을동리김리준(金利俊)의딸가억녀(可憶女)와 약혼하고 동녀의집에 동거중 금년이월 장모의돈오원팔십전을 도박에 소비한것으로 장모에게질책을당하고장모의 돈을갑하주기위하여 금년 삼월 십육일미명 동리주류판매업(酒類販賣業) 권정환(權正煥)의집에 침입하여 돈을찻다가깨여 드는권정환과 동인의 처권덕선(田德仙)(四一)을 독긔(斧)로 머리를되려 즉사케하여노코 권덕선의 주머니속에서 현금일원오십전을 강탈하고 범적을감추기 위하여 동인의집에 방화하고 량인이 타죽은것처럼꾸미인참혹한 범죄사건이라한다

忠州警察에서 七名引致嚴調
檢事局員도現場調査

【忠州】긔보=충주군금가면 매하리(忠州郡金加面每下里)에서 농악단충돌사건이 발생하자 소관 충주경찰서에서는지전(池田)경부주임이하 다수경관이현장에 급거출동하야 활동을한다 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동경관대는 지난십팔일오후에야 전긔매하리(每下里)지수환(智秀煥)등 칠명의주모자를 검거하야 방금인치엄조(引致嚴調)중이라하며지난십팔일 조조에는 충주검사국에서도 이사건의 진상을조사코자 현장에출장하엿다가 동일오후에 돌아왓다고한다

마라손金君 新義州向發

【定州】루보=동경신의주간 장거리 마라손선수 김화영군은 지난십팔일 령미(嶺美)를 떠나 당일오후쇠는듯한복염(伏炎)과 싸워가며 정주에 도착하야 하로밤을 쉬이고 의십구일오전오시삼십분에최종코―스신의주를향하야출발하얏다

金美理士女史 講演會를開催
安東縣婦人會主催

【安東縣】안동현 조선인 부인회(婦人會)는 수년전 조직되여 사회공헌사업을 수시개최하여다대한 호평을바더오는바 지난십팔일 안동보통학교강당(普通學校講堂)에서 경성근화녀학교 창립자김미리사(金美理士)녀사를초빙하여강연회(講演會)를김복실(金福實)녀사의개회사로 개최하고 륙도구면려청년회합창대의합창과강순옥(姜順玉)양의 독창이잇슨후 김미리사녀

白晝大道上에서 二千圓强奪逃走
三名의怪漢이나타나서 安東縣서생긴怪事

【安東縣】십구일오전십시안동현구시가(舊市街)번화가인흥륭가(興隆街)김복관에서협금이천원을 강탈도주한사건이잇다 시내관전가유방업공태호(油房業公泰號)의점원 고수상(高壽祥)(二二)이가 십구일오전구시경중앙은행(中央銀行)안동지점에서 만주국백원지폐이십매를 차가지고 서집금주머니(集金袋)에 넣코 상점으로 도라오는길에 풍연 괴한삼명이나타나서 협박한후 집금주머니에든 이천원을강탈하야가지고 어데로 도주하얏다 일본헌병대에서 목하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宣川에서는 晝夜二回다盛況
保育學校巡廻演奏

【宣川】경성보육학교순회음악단일행은 예정대로 십팔일오후삼시반 특급렬차로 당지에도착하야 동사시에 신성학교강당에서 저원회여주최를 열엇는데 장태는 만원이되엇고 순서마다 『앵콜』에 관중은 도취되고말엇스며 케나회는 귀녀팔시반에다 사 동강당에서열리엇는데 구십여도나되는 쩌는듯한 더운밤을 불고하고 역시 대만원을일운첨황이엇스며 당지유지 리영학씨와 오현준씨의 두별초대와남녀 최녀회 리사들의 환영회가잇서 어곳서 귀용되는 대청황을일우엇다 (사진은 당야 성황을일운 장면)

迎日서도 少婦投身自殺
家庭不和의原因

【安康】경북영일군긔계면산천동거주홍핵(慶北迎日郡杞溪面川洞)의안해 김모(二一)는 칠월십이일에 집압 망정못(望亭澤)에빠저죽엇는데 그원인은 자세히알수업스나 아마가정불화로 죽은것이나 아닌가 추측된다고한다

身病을悲觀 少婦飮毒自殺

【晉州】지난십오일오후칠시경에 진주소화정 백십사번지장영록(晉州昭和町一一四張永祿)의셋재딸 성례(性禮)(一九)가 음독 자살하엿다는데 그자세한사정은 전긔성례는 원측이풍병(癩病)으로 고생타가 근일에와서 그병이완치되엇것을 무한히깃버하든중 지난봄에 시내명치정 박삼명(市內明治町朴三命世)(二元)와 결혼한이래 다라한가정사리를 하여오든바 불행히다시 풍병이 인편손등에 재발되엿다 시 치료할도리가업슴을 각오하고 절망과비관으로 지나다가지난십사일에 아모도몰내 쥐잡는약을 먹고그이튼날인 십오일에드듸여죽어버렷다고한다

五個公設市場 買收案具體化
◇……財源十八萬圓起債

【平壤】평양부에서는 보버의공설시장(公設市場)新倉里 壽町 柳町 幸町 船橋里 등오개소의 시장부지(敷地)를 매수코저 계획중이든바 대체로 조사와 내량을 마첫슴으로실행에착수키로되엿다 그부지는 약일만평으로 매수가격은 십륙만원 여기에설비를 가하면 십팔만원이되는데 재원은 긔채로충당케되엿다 환상방법은 종래의차지료(借地料)일개년에 일만륙천원으로 긔채차지료의 금리를지불하여 이십개년에 원금의지불을 필하는안이라한다

第三回全朝鮮 少年蹴球大會
◇……一般任員發表

【平壤】긔보와가티숭전학생긔독청년회체육부(崇專學生基督靑年會體育部)주최와본사평양지국(本社平壤支局)후원으로이십오、륙량일간 숭전구장(崇專球場)에서 개최되는 제삼회전조선소년축구대회(第三回全朝鮮蹴球大會)는긔일임박으로 주최자측에서는 방금준비에 분망중이며 가단체도 상당히만허 인긔는비상히 집중되여잇다 금번대회의임원은 다음과가트며 추첨은이십일일오후 륙시숭전체육부사무실에서 대회간부와신문긔자립회하에서 거행케되엿다

◇大會任員
會長 馬布三悅 副會長 羅鳳德 總務 姜鱗琢 本部委員 崔應天 朴炯烈 羅昌長 朴永哲 委員 朴羲鉉 朴炯烈 金己德 金永根 尹昌浩 李根泳 朴永煥 李容夏 沈豪烈 楊雲煥 吳用八 事務部 朴在鎰 記錄部 朴贊吉 趙瑞鎬 姜信明 接待部 金文國 救護部 少年斥候隊 丁錫賢 金秉河

第一回南朝鮮 個人庭球大會
本報支局主催

【金海】본보김해지국(本報金海支局)주최로 제일회남조선개인정구대회(第一回南朝鮮個人庭球大會)를 지난이일에개최

苦熱이나흔溺死者

麗의南江에서 兩日溺死兩件

◇【晉州】지난십칠일상오열두시경에 진주남강(南江)서장대(西將臺)근방에서진주고보학생수명이 수영하든중 리긔봉(李琪鳳)(一八)이라는학생이무참이익사하엿는데 그는 진주읍금정삼백오십오번지에서사는리상만(李祥萬)씨의장남(長男)으로서 진주고보교의 사학년에 재학중이엿다고한다

◇【晉州】씻는듯이또이는삼복 천의혹서를피하여 강물로 몰리여 드는사람들의 생명은종종수중고혼으로 사라지는 일이만타 십팔일 오전한시경에 이십세의 청년 한사람이 수영하다가참혹히 익사하엿다는데 그는진주읍서봉정삼백칠십이번지(西鳳町三七二)에사는 강봉학(姜鳳鶴)의 외아들로서 엇마전까지일본에잇다가 한일주일전에 고향으로 다니러왓다가 그가티익사하엿다고한다

大同江에서 又復靑年溺死

【平壤】십구일오후오시삼십분경 부내하수구리(下水口里)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출신(出身)김긔준(金祈俊)(二二)은 동무 두사람과가티 반월도(半月島)를향하여 횡단수영(橫斷水泳)을하든중 경련을일으켜그만 무참한 죽엄을하엿다 이것으로 금년대동강 수영중희생자는 열명째이며 시체는 오후십시까지 건지지못하엿다한다

英陽郡下에서 一日兩人溺死
同一洞里에서

【英陽】경북영양군영양면하원동(慶北英陽郡下元洞)엄성봉(嚴聖奉)의 장남 엄수원(嚴守元)(一○)은 지난십오일 동리압길가에서 놀다가그만 실족(失足)하여 무참히빠저죽은 사실이잇섯고 동일오후 동리에서 또걸인(乞人)한명의익사(溺死)자가 생겨 부근일대에서는 일시대소동을 이르켯다한다

福河川에서 水泳男子溺死

【利川】지난십팔일오후두시에 리천 복하천(福河川)에서 리천군부발면 가좌리에사는 지춘보(池春甫)(二○)는 생활곤란으로 나려다년간 남의집고용살이로 나려오든중에 입윤하다가 고열에못견대여 목욕을하든중 실족하야 무참하도 죽엇다는데 장차남아잇는 그의가족생활이 문제어라고한다

線路서놀다가 少女一名轢死

【天安】충남천안군직산면상동리(忠南天安郡稷山面上東里)강보의(姜甫儀)의 오녀(五女) 명춘(明春)(四)이는 지난삼십일에 어린아이들과가티뜨거운더위를피하여 동네압철도선로에 가서놀다가 마침지나가든 긔차에 치여 두부와면상에 중상을입고 혼도된것을 소녀의모친과 차장이 긔차에 태워가지고 천안역전 천안병원(天安驛前天安病院)에 다리고가서 응급수당을 하엿스나 그만절명되고마럿다고한다

窮民救濟工事費 三百萬圓要求
◇…實現性이充分 港灣修築、河川改修

【咸興】내년도토목비보조구제사업(窮民救濟)에관하야 함남도신국 서무부장(內務部長)과 이동토목과장(伊藤土木課長)이 커간상경하야총독부 당국에 항만급도로 개수비(港灣及道路改修費)중계 삼백만원 을요구하엿는데 총독부 에서도 함경남도의 재원의부족함을 잘알기때문에 그요구를승인 하리라는바 그것이실현되면 다년간의현안이든 함흥의관문인 서호진(西湖津)의 어항수축(漁港修築)도 충분히 가능성이 잇스며 너어북청남대천(北靑南大川)개수공사를 필하면 다음으로남은 것은 단천남대천 (端川南大川)과정평금진강(定平金津江)개수 공사인데 이하천은직할하천(直轄河川)에준(準)하는중요한 하천으로금후곳착수진하는 긔회를 짓고커한다 고권한나

馬山에서도 小兒一名溺死

【馬山】지난십칠일오후삼시반경 마산추앙 매립지(埋立地)에서 마산만정(萬町)고상록(高相祿)의장남 용춘(九)이가 진흙에 석구러박혀 무참히죽어버렷다한다 그경과를뭇건대 두형제가 나무조각을타고놀다가 그릇되야떠러저 진흙에 박혀그와가치되엿다한다

傳染病續出 臨時病舍增築

【平壤】십팔일 현재 도립의원(道立醫院) 전염병실에 수용한장질부사 십일명 적리(赤痢)삼십삼명 합계사십사명을 수용하여 만원이되엿고 긔림리(箕林里) 보생의원(普生醫院)에 지부스이명 적리십칠명성홍열(猩紅熱) 두창(痘瘡) 각일명 합계이십일명에달하여 압흐로 수용능력이 업는 긔독병원 전염병실(基督病院傳染病室)에도 지부스삼명을수용하여 압흐로 수용능력이 사명뿐이다 일긔의부조로 인하여 각종전염병 특히소화긔계통의 전염병환자가 속출하는 상태임으로 평양부 상야(上野)내무과장은 십구일도위생과와 협의한결과 십구일부터 이십명을 수용할수잇는 「바락크」림시전염병실을 긔림리보생의원 부근에 건축하기로 하고공사비이천오백원을 계상햇다 한다

怪常한小包는 精神病者所爲
群山警察의헛물

【群山】긔보―군산경찰서고등계로 알지못할 소포(小包)한개가 도착하얏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계원의손으로 개봉하야보즉 목상(木箱)안에 무근자물쇠 인육(印肉)베쪼각 지저귀등속의 허무맹랑한것만 드러잇슬뿐이엿는데 이것은 어느 정신병자의 작란으로 판명되엿다

惠山에窃盜

【惠山】지난십삼일밤에 함남갑산군 운흥면 중봉리(咸南甲山郡雲興面仲峯里)김희문(金希文)씨집에 절도가침입하야 현금칠십일원과 옷감녀어둔의롱을 그집뒤 공동묘지에들고나가 잠을쇠를 파괴하고 곡식을내여가지고 도망하엿슴으로 소관주재소에서는 방금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地方人事 ◇[illegible]氏(…)는 十八日午前十一時[illegible]

今日 二十日午後八時半

京城保育巡廻音樂大會
△場所 開原公會堂
主催 朝鮮日報社開原支局
後援 朝鮮民會外三團體

本報支局主催後援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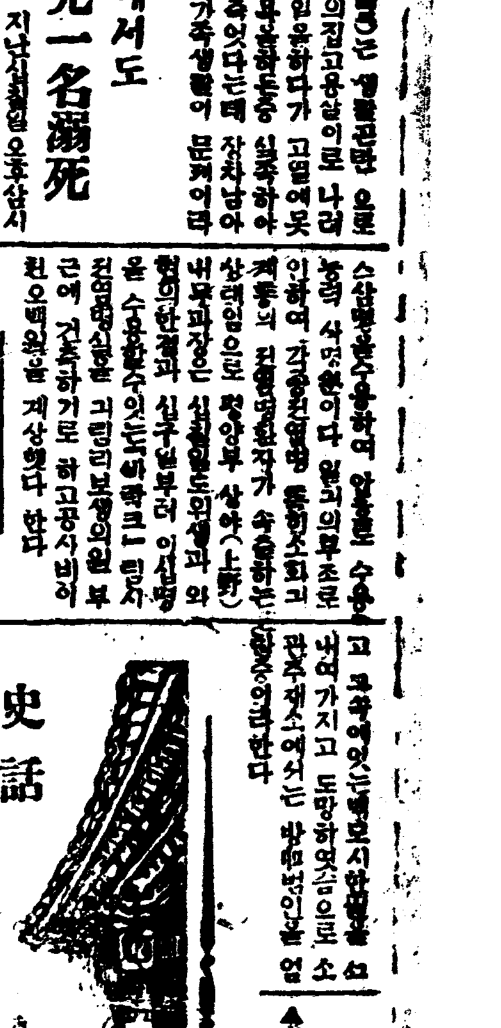
統營 夏期衛生講演會 優良兒表彰式
△時日 七月二十二日夜
△場所 大和町蓬萊座
◇主催 朝鮮日報統營支局
◇後援 東部、白省、近明、朝日、各幼稚園

金海 南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七月三十日午前八時(雨天順延)
◇場所 金海合成校코―트
◇主催 朝鮮日報 金海支局
◇後援 金海體育俱樂部

長箭 元山觀光團募集
▲時日 七月二十四、五、六、三日間
▲申請 七月二十三日外지
會費 一人當四圓五拾錢也 (往復汽船賃金三日間食費)
△申請場所 本報長箭支局
◇主催 朝鮮日報社 長箭支局
◇後援 國際通運長箭出張所

花山 第二回湖南蹴球大會
▲時日 八月五日로六日外지
▲場所 海南花山公普校그라운드
◇主催 花山消費組合
◇後援 朝鮮日報社花山分局

車輦館 平北個人庭球大會
△日字 七月二十九日午前十一時(雨天順延)
△場所 車輦館幼稚園코―트
◇主催 車輦館體育會
◇後援 東亞、朝鮮日報支局



史話 雲峴宮의봄 32
琴童 作 石泉 畵

四의三

자긔의 친구들과 짓거려대면서 술을 먹고잇는 병긔에게 향하여 갑자기 무엇이라고 하여야 할지 말문이 막힌 흥선은 좀 그자리에 웅그리고 서 잇다가 마츰 술을 가지려 나가려는 기생을 붓들어서 갓쓴의 사연을 병긔에게 전하게 하엿다

병긔는 기생에게서 그 사연을 들엇다 그러고 히긋흥선을 쳐다 보앗다

『홍! 홍선대감 오섯군 자 약주나 한잔 바드시오』

병긔는 아렛목에 안즌채술잔을 흥선의방향으로내밀엇다

『갓신은 무슨 갓신? 그레 효박갓신이 아니면 술사시지 말란되쌋? 하하하하』

술잔을 내여민채 병긔는큰 소리로 우섯다 거기 모혀잇든 젊은 공자들도 일제히우스며 흥선을 처다 보앗다

흥선은 이 조소에 곽 눈이 어두워 젓다 그 흥선의 귀에병긔의 계속되여나오는 소리가 들렷다

『남의 갓쓴을 빌려서 체면이나 차리면 뭘하오? 실속으로 술을 먹어야지 자 술은 내 드릴테니 걱정마시오 잔으로 시언치 안흐면 바리째로라도 요강뚝경으로라도 마음대로 자시오』

이 너무도 과한 조소에거기 잇든 기생이 무안하여잔에 술을 하나 부어 가지고 흥선에게로 달려왓다

『대감 드세요 이―술―한잔―잔―으―』

그러나 홍선은 그 잔을밧지 안핫다 얼굴에 소가죽을 대이고●창피한놈을 창피히녀이지안코 다니는흥선이로되이 명긔의독설에는 자긔의정신을 거의일토록 흥분되엿다

일부터 자긔가빌리러 온것은아니엇다 자긔는 아모런갓슨이던갓하는 사람이아니엇다 다만 병긔의아버지 하욱이그런 호의를쓰기에 고맙다 하고온것에지나지못한것이다 거기대하여 병긔의농대는 그도수를넘친것이엇다

홍선은 그 만반 진찬을먹지를 안헛다 그러고 소매를 떨치고 하오의 집을 뒤로하엿다

× ×

이년전에 겨근 이 불한한토막의 이야기를 홍선은 대비의 아페 피력하엿다 그러고 스스로도 어이가 업는듯이 허허허 우섯다

대비드 흥선의 이야기에 소리를 노피서 우섯다 이패의파락호의 공자가 금라로오민 재상들 틈에 석기어서 가치 담소를 하는 장면을 머리에 그려 볼때 五十년 생애의 그 三十여년을 궁중에서보낸 대비는 一종의통쾌미조차 느긴 것이엇다

그런 뒤에 대비는 탄식하엿다

『김문(金門)이 너무도 승해 과히 승해』

김문의 과한 방자에 대하여 호소할곳이 업든 대비가 거기대한 원한을 맘밧게 내여보는 그런말이엇다

『세도(병긔를 가르킴)가 아모리 놉다 하기로서니 군가를 그리듯멸시해?』

『지당한 말씀 이올시다 김문 아페 가면 종친은 사람축에도 들지못합니다 더구나 흥선가튼 종친중의 가타지는 말할것도 업습니다』

우슴으로 마음을 소긴 말이엇다 그러나 마음속에 매밧치고 쏘매친 분한은 우슴가운데도 그의 말투에 원한이 섞기어 잇섯다

대비는 흥선의 우에 부엇든 미소의 얼굴을 조카 성하에게로 돌렷다―

『성하 너도 가면 그런 멸시를 밧느냐?』

『바듯것이 실혀서 도대체가지도 안습니다』

아직 열넷줍살의 소년이니 숙성하기 때문에 한二十살좀 나보이는 성하는 귀공자다운 미소를 얼굴에 띄어가지고대답하엿다

이리하여 이방안에는 수十년내로 처음 활긔잇는 우슴소리가 엄하여 낫다 구중(九重)기픈속에서 三十여년을 외로히보낸 조대비의 나날도될귀와 회긔가져욱이 떠돌앗다